

조선반도에서 긴장을 격화시키는 도발자는 과연 누구인가

미국과 괴뢰패당이 떠드는 《북도발론》의 정체를 해부함

29일부 《로동신문》에 실린 론평원의 글 《조선반도에서 긴장을 격화시키는 도발자는 과연 누구인가》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최근 조선반도사태는 내외의 커다란 우려를 불러일으키고있다.

미국과 괴뢰패당의 무분별한 대결과 전쟁책동으로 북남관계가 더욱 파국에 치하고 군사적긴장이 날로 격화되고있다.

조선선해와 제주도해상에서 미국핵항공모함의 참가하에 공화국을 반대하는 대규모전쟁연습이 매우 위험하게 벌어지고 미국, 일본, 남조선사이의 침략적결탁이 전례없이 강화되고있다.

공화국의 존엄과 자주권, 합법적권리를 모독, 유린하는 국제적외교관들이 공공연히 벌어지고 《제재》와 협박소동은 엄중한 단계에 이르렀다.

조선반도에 전란의 광풍을 몰아오고 있는 이 모든 대결과 전쟁책동은 어처구니없게도 그 무슨 《북의 도발》이라는 황당무계한 구실 밑에 감행되고 있다.

미국과 괴뢰패당은 우리가 핵을 보유하는것도 《도발》이고 평화적인 인공위성을 발사하는것도 《도발》이며 지어 저들의 전쟁책동에 대응조치를 취하는것에 대해서까지 《도발》이라고 하면서 반공화국대결과 모략소동에 파는이 되어 날뛰고있다.

참으로 도적이 도적이야 하는 격의 가스로운 추태이다.

도대체 조선반도에서 긴장을 격화시키는 진짜 도발자는 누구이고 사태를 악화시키는 시발점은 어디에 있는가.

원래 상대방을 도발자로 몰아 침략하는것은 제국주의의 상투적수법이다. 미국이 저지른 지난 조선전쟁과 월남전쟁이 그 대표적사례이다.

《북도발론》은 바로 그러한 침략전쟁책동의 연장이고 반공화국도발소동의 극악한 산물이다.

미국과 괴뢰패당이 그 무슨 《도발》을 운운하며 우리를 가장 악랄하게 걸고드는것은 핵문제이다.

미국과 괴뢰패당은 우리가 핵보유국을 선포하고 그것을 헌법에 명시한데 대해 기겁을 하며 우리의 당당한 핵자주권행사를 모두 《도발》로 걸고들며 야단법석하고있다.

그것이야말로 사실을 전도한 파렴치한 도발이다.

조선반도비핵화를 시종일관 주장해 온 우리가 어떻게 되어 핵보유국으로 되었는가.

핵위협이 어디서부터 오고 누가 누구를 위협한다 말인가.

지난 조선전쟁때 미제가 원자탄공갈

로 수많은 사람들을 남쪽으로 끌고가 《1천만리산가족》이라는 민족의 대비극을 초래한데 대해 우리 겨레는 오늘도 똑똑히 기억하고있다.

조선반도에 핵무기를 처음 끌어들이는것도 미국이고 남조선은 세계최대의 핵무기로 전면전쟁때도 미국이며 장강 수십년동안이나 북침전쟁연습에 광분해온것도 다름아닌 미국이다.

우리에 대한 《핵선제공격》 폭언을 로골적으로 채치고 《핵태세검토보고서》니, 《확장억제》니 하는것을 통해 핵공격홍성을 드러내며 그와 관련한 작전계획을 작성하여 실천연습까지 하면서 핵전쟁도발에 미쳐날뛰는것이 그 래 미국이 아니란 말인가.

랭전종식후 핵대국들사이에서는 핵무기를 축감하고 서로 조준하지 않기로 하였지만 미국은 우리에게 대해 핵용동이를 더욱 악랄하게 휘둘렀다.

미국의 이러한 핵위협을 언제까지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가.

우리로 하여금 핵을 보유하는 길로 나가게 만든 당사자는 바로 미국이다. 우리가 것처럼 조선반도비핵화를 호소할 때 미국이 그에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여주었다면 오늘과 같은 핵문제는 애당초 발생하지도 않았을것이다.

핵위협의 왕초이며 핵초대국인 미국이 그 무슨 《북핵위협론》을 떠드는것은 언어도단이다.

더우기 남조선을 미국의 핵선초기지로 내밀고 상전의 핵전쟁책동의 하수인으로, 돌격대로 앞장에서 날뛰 괴뢰패당은 우리의 핵억제력을 걸고들 어꾸리 명분도, 자득도 없으며 오히려 민족의 심판대에 올라야 마땅하다.

미국과 괴뢰패당이 우리를 걸고드는것의 또 하나는 인공위성발사이다.

그들은 우리의 평화적인 인공위성발사에 대해 장거리미사일발사시험이라고 한사코 우기면서 핵문제와 함께 이것을 구실로 조미협상과 6자회담까지 파란사키며 《도발》이니 뭐니 하고 고이대고있다.

이것 역시 첩면피한 도발이다. 우주개발은 국제법적으로 공인된 권리이고 그에 따라 여러 나라들이 인공위성을 쓰어오고있다.

우리만이 유독 인공위성을 발사해서는 안된다것은 날강도적인 강변에 불과하다.

미국과 괴뢰패당은 우리가 인공위성발사를 진행하면서 관련국제법을 철저히 준수하고 전문가, 기자들까지 초청하여 위성발사장 등을 직접 보여주는 투쟁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평화적인 위성발사라는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 더 걸고들 구실을 찾지 못하게 되자 실사 인공위성이라고 할지라도 탄도미

사일기술이 적용되므로 용인할수 없다고 떠들어댔다.

이 얼마나 무지막직한 생매인가. 그들의 논리대로 한다면 일본의 위성발사 역시 탄도미사일개발을 위한것이고 괴뢰들이 거들되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제3국의 도움을 받아 또다시 짜올리려고 하는 위성도 미사일개발을 위한것으로서 용당 문제시되어야 할것이 아닌가.

더구나 한해에 수십차례씩 위성발사를 하고 최신행미사일발사시험과 요격미사일시험을 빈번히 벌리는 미국이 우리에게 대해 《미사일위협》을 떠드는것은 어불성설이다.

미국과 괴뢰패당은 저들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응당한 대응조치에 대해서도 《도발》이니, 《위협》이니 하며 걸고들고있다.

그것 또한 황당한 꾀변이며 우리에게 대한 첩포한 도발이다.

해마다 《키 리졸브》니, 《울지 프리덤 가디언》이니, 《독수리》니 하는 등의 북침전쟁연습을 수백수십차례 나 벌리고 지어 우리 공화국기를 표적으로 총포탄을 미친듯이 쏘아대며 감히 북선제공격과 《평양침략》, 《집무실창문타격》까지 운운하면서 전쟁열을 올리는것이 누구인가.

허황한 《급변사태》니, 《자유민주주의체제의 통일》이니 뭐니 하며 체제대결기도를 로골적으로 드러내고 온갖 인간 쓰레기들까지 내몰아 빼라살포와 《대북방송》과 같은 반공화국심리전에 광란적으로 매달리는것 또한 누구인가.

도발은 저들이 결면서 그에 단호히 대응하면 그것을 《도발》이라고 하는자들이 바로 미국과 괴뢰패당이다.

괴뢰패당이 입만 벌리면 떠드는 2010년의 합선침몰사건과 연평도포격사건도 미국과의 결탁 밑에 저들이 모략하고 선봉질을 하였다가 얻어맞은 사건이라는것은 세상야 다 아는 사실이다.

미국과 괴뢰패당은 북남관계가 악화되고 조선반도긴장이 격화되는것이 마치도 《천안》호사건이나 연평도포격사건때문인것처럼 떠들어대지만 그것은 자기의 죄행을 감추고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기만적인 술책에 불과하다.

그 시발점으로 말하면 썩 이전 리명박역도가 집권하여 북남공동선언을 뒤집어놓고 우리와의 전면대결을 대북정책으로 선포한 그때부터이다.

리명박패당은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우리의 성의있는 노력에 악랄하게 도전하면서 북남사이의 대화와 협력사업을 모조리 파란시켰을뿐아니라 온갖 도발에 미쳐날뛰면서 우리의 체제와

존엄까지 극악하게 모독함으로써 북남관계를 더는 수습할수 없는 지경에 몰아넣었다.

북남공동선언이 리명박이 북남관계가 더욱 좋아지고 조선선해가 평화의 바다로 되겠다려면 오늘과 같은 협약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을것이라는것은 두말할것도 없다.

우리의 최고존엄에 대한 모독은 천추에 용납 못할 가장 극악한 도발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들의 분노를 하늘에 닿게 하고 세상을 경악시킨 괴뢰군과 예비군훈련장에서 벌어진 사격표적사건, 질세의 위인들의 사진 및 구호에 대한 모독사건, 우리의 대국상대 감행한 약행, 우리 정치행사에 대한 악랄한 중상 등은 인간으로서 상상할수 없는 극악무도한 반인륜적만행으로서 동서고금에 전무후무한 가장 추악한 특대형도발로 기록되고있다.

괴뢰패당은 대결에 환장이 된 나머지 그 누구의 의지도 없는 《인권》문제를 걸고들고 경제와 인민생활을 시비해나서다 못해 나중에는 하늘처럼 떠드는 자기 령도자에 대한 우리 인민들과 어린이들의 순결한 사상감정과 진정으로 되는 눈물마저 모독하였다.

이처럼 비렬한 도발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

속에 칼을 품고 유엔의 이름까지도 용하여 우리에게 대한 제재와 고립, 봉쇄와 압살책동에 미쳐날뛰는 미국과 반인민적약정과 민생과란으로 민심의 규탄배격을 받고있는 리명박패당이 그 누구의 《인권》이요, 《민생》이요 하는것은 너무도 역겨운 도발이다.

이 세상에서 군사비를 가장 많이 탕진하는 미국과 상전의 침략전쟁책동에 인민들의 혈세를 강그리 쏟아부고있는 괴뢰패당은 그 무슨 《비용》문제에 대해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다.

미국과 괴뢰패당이 침략전쟁책동으로 우리가 국방건설에 힘을 내지 않을수 없게 만들고는 우리 경제와 인민생활을 시비하고 《인권》과 그 무슨 《비용》문제까지 걸고드는것이야말로 그들의 검은 흥성과 도발적정체를 그대로 드러내었다.

문제를 1%에겐 천당, 99%에겐 지옥인 미국식 자본주의 사회와 미국의 식민지인 썩어빠진 남조선사회, 그와는 전혀 다른 인민이 주인으로 되고 무상치로, 무료교육의 혜택을 누리며 온 나라가 하나의 대가정이 되어 서로 도우면서 화목하게 살아가는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사회, 과연 어느쪽에 우월한가.

이에 대한 우리 인민의 대답은 명백하다. 우리가 국방력을 백방으로 다진 조건

에서 이제 정치군사강국에 이어 경제강국의 명마루에 올라서게 되면 우리 인민은 세상에 부럼없는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누리게 될것이다.

하기에 우리 인민은 그날을 하루빨리 앞당기기 위해 용기백배하여 최후승리를 향한 총돌격전에 힘차게 떨쳐나서고있다.

약용강식과 개인주의, 황금만능에 물들여있는자들은 우리 인민이 왜 자기 체도를 것처럼 귀중히 여기고 그 품에서 사는것을 최고의 행복으로 간직하며 목숨바쳐 지키려고 하는지 백번 죽었다 나도 알수 없을것이다.

그러한 우리 인민에 대해 어찌고저저고 하는것은 우리 인민의 순결한 사상감정에 대한 모독이고 우롱이며 참을수 없는 도발이다.

제반 사실은 조선반도에서 대결과 긴장을 격화시키는 도발자는 다름아닌 미국과 괴뢰패당이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준다.

미국과 괴뢰패당이 《북도발론》을 떠드는 목적은 다른데 있지 않다. 그것은 위대한 김정은동지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따라 선군의 기치 높이 정의 대변자, 평화의 수호자, 사회주의성세로 온 세상에 빛을 뿌리며 날로 승승장구하고있는 우리 공화국의 불멸의 위력에 질겁하여 우리의 위상을 깎아내리고 그 영향력을 막아보려는것이 아니다.

또한 북남관계파국과 조선반도긴장격화의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시키고 저들의 대결과 전쟁책동을 정당화하며 북침야망을 기어 달성해보려는것이다.

미국과 괴뢰패당이 《북도발론》에 매달리는데는 남조선에서 날로 높아가는 량복통일기운에 찬물을 끼얹고 우리 내부를 교란하여 일심단결을 해지하며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로 나가는것을 가로막아보려는 비렬한 속심도 갈려있다.

미국은 역사적으로 북남사이에 화해와 단합, 통일의 기운이 높아질 때마다 괴뢰패당을 부추겨 충격적인 사건을 도발하여 그것을 악랄하게 방해하였다.

미국이 6.25조선전쟁을 도발한것도 북과 남이 통일로 나가는것을 가로막고 전조선을 집어삼키기 위해서였고 박정희군사강권을 내몰아 5.16쿠데타를 일으킨것도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만나자 판문점에서》라는 구호 밑에 량복통일기운이 높아가자 그것을 차단하고 분열을 영구화하며 남조선을 식민지로 계속 깔고앉아보려는데 그 음흉한 목적이 있었다는것은 비밀이 아니다.

1970년대에는 7.4공동성명이 채택되

자 《유신》독재체제를 구축하고 북침전쟁책동을 강화하는것으로 그에 찬물을 끼얹었으며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여러 갈래의 대화들이 벌어지고 교류협력의 문이 열리게 되었을 때에는 《팀 스퍼리트》합동군사연습을 비롯한 반공화국핵전쟁소동에 미쳐날뛰면서 그에 빚장을 질렀다.

역사적인 6.15공동선언발표를 계기로 조선반도에서 통일의 전환적국면이 열리게 되자 전면공공하고있던 미국은 리명박보수 《정권》을 조작하고 그들을 내세워 북남관계를 하루아침에 박살냈다.

실로 미국이야말로 북남관계를 파국으로 몰아넣고 조선반도사태를 악화시킨 원흉이다.

지금 미국의 오판과 전횡, 강권은 극도에 달하고있다.

미국은 《국제헌법》, 《세계제관관》으로 자처하면서 저들에게 순종하는 친미적인 나라들은 그 어떤 불법행위도 묵인해주고 자주적인 나라들에 대해서는 합법적권리와 정당한 주장도 비법으로 몰아 압살하려 하고있다.

미국이 저들의 침략정책수행에 필요하면 유엔을 동용하고 거처장사주연 유엔으로 국제법이고 다 뺄개치며 다른 나라들을 제멋대로 치고 깔고앉는것이 바로 오늘의 비극적인 현실이다.

그러 하여 녹아나 나라와 민족이 얼마나 되는가.

6.15공동선언이 채택발표되었을 때 전폭적으로 환영한 유엔이 미국과 괴뢰패당에 의해 6.15가 처참하게 짓밟힌데 대해 한마디 비난성명도 내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의 대결과 전쟁책동에 같이 춤을 추고있는것도 개탄할 현실이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사태가 더이상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우리는 지난 시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조선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를 위해 책임적이고도 인내성있는 노력을 기울일것이지만 미국과 괴뢰패당이 우리를 러무니없이 걸고들면서 도발적으로 나오는데 대해서는 추호도 용납하지 않고 몇천배로 정벌하여 단호히 짓무게낼것이다.

세界的 공정한 여론과 진보적인민들, 남조선 각계층은 조선반도에서 누가 도발자인가를 똑바로 가려보고 미국과 괴뢰패당의 《북도발론》을 견결히 배격하며 우리의 정의의 위업에 련대성의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북과 남 온 겨레는 미국과 괴뢰패당의 범죄적인 《북도발론》을 짓부시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이 땅에서 통일의 원수들을 영영 쓸어버리고 제2의 6.15통일시대를 기어 이 안아올것이다.

김정일국방위원장의 로고와 헌신의 결정체

공화국의 경제발전상과 그를 추동하는 CNC화의 일단에 대한 글이 남조선인터넷신문 《참세상》에 게재됐다.

글은 아래와 같다.

북의 첨단돌파의 상징으로 불리우는 CNC화는 김정일국방위원장의 결단과 노력의 산물이라는데 대해 전하고있다. 그분이 CNC화를 구상한것은 1990년대라고 한다. 그때 북은 동유럽에서의 사회주의체제붕괴, 대국상, 현이든 자연재해 등으로 전대미문의 시련을 겪고있었다. 여론들은 북의 《붕괴》는 시간문제라고 했고 미국을 비롯한 서방나라들은 그에 따르는 체제변화세력이라고 작정공개했다. 그러나 북의 령도자가 누구이며 북의 사회가 어떤 사회인가를 너

무도 몰랐다. 김정일국방위원장은 과학적사회주의의 승리를 굳게 확신하고 김일성주석의 뜻대로 주체사회주의를 고수할 의지를 천세기에 걸쳐 선언했다. 그 때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심중에 자리잡고있었던 것은 사상승시, 군중시와 함께 경제의 CNC화였다. CNC는 기계공업만이 아닌 전반적경제력강화의 실체로 인정되고 있다.

김정일국방위원장이 그처럼 어려웠던 시기에 CNC화를 전파한것만 보아도 그분의 위인적품모를 잘 알수 있다. 김정일국방위원장은 식량사정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민중들, 속출하는 공장들 때문에 피눈물을 삼키면서 얼마 안되는 자금을 CNC기

계제작에 돌렸다고 한다. 그분의 결심과 판단은 정확했고 마침내 북에서 첫 CNC기계가 탄생했다. 그 CNC설비는 북의 전반적산업 분야에서 첨단돌파의 불길이나오게 한 불꽃이었고 김정일국방위원장의 로고와 헌신의 결정체였다. 그로부 직접 착상하고 구체적인 실현방도들을 밝혀주었음뿐아니라 필요한 모든 조건들을 풀어주면서 이끌었기때문이다.

오늘 북의 CNC산업은 공고한 터전에 든든히 뿌리박고 시간을 다루며 새끼를 치고있다. 2010년 12월에 최현련하기계종합공장을 현지지도하면서 환하게 웃으시는 김정일국방위원장의 모습은 세계를 향해 승리를 선언하는 모습이었었고 공장에 펼쳐

진 CNC기계들은 어마어마한 것이었다. 북에서 거세차게 휘쓰는 CNC화의 열풍은 김정일국방위원장이 제시한 국방공업의 우선적발전과 경공업과 농업의 동시적발전이라는 경제건설로선의 정당성에 대한 파시라고 불수 있다. 세계가 공인하는 북의 막강한 국방공업을 안받침하는것이 CNC화이다.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인공지구위성의 제작 및 발사와 핵시험, 중거리 및 단거리미사일들, 우라늄농축시설, 각종 첨단군사기술기체들은 CNC기계를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오늘 북에서는 CNC화가 군수산업의 범위를 벗어나 경제전반에, 김정일국방위원장이 현지지도한 모든 곳에서 펼쳐지고있다.

본사기자

런 시 내 조국의 6월에 부른 노래

행복의 6월이여

정 원 자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단동시지부 공민)

어제는 6.1절이라 아이들속에 심년나마 젊어졌는데 오늘은 6.6월이라 조국방문날날이 명절속에 흘러가네

평양의 6월은 온통으로 아이들 천지 아이들의 명절 위해 특별비행기에 특별렬차라 조국에서 아이들은 나라의 왕!

어절씨구 어깨춤이 절로 나는 노래 로구나 지리 길 비켜라 《왕》 닮 행차시다 선두차는 경적소리 높이 울리고 교동보안원들 거수경례 총음도 한데 평양의 거리에선 손들어 춤을 추네 차창넘어 꽃잎같은 아이들의 손 마주향해 뜨겁게 흔드는 길손들의 손...

유서깊은 만경대에 가도 아이들 금수산태양궁전에 가도 아이들 새론 선 창전거리 회한한 인민극장 모란봉기슭의 개신청년공민 오, 그 어디엘 가도 은 평양이 얼싸안은 아이들, 아이들 ...

소원의 6월이여

송 원 자 (재중조선경제인연합회 회원)

어찌 크지 않으리요 아이들의 명절을 민족사의 대경사로 축복해주며 땅우에선 특별렬차 하늘에선 특별비행기 날으는 조국인네

해바라기마냥 곱게 웃는 아이들 저 행복의 꽃물결속에 잠기면 세월이 없어준 나의 백발 아름다운 청춘의 철후으로 다시 검 어질듯

발걸음도 씩씩한 저 물결속에 잠기면 두껍던 나의 허리 참대도 부러워

하리 여드레 팔십이었던 나의 걸음 삼천리 주름잡는 천리준마도 부러워 하게 되리

만복의 꽃속에 묻힌 조국녀성들의 구실감 하나 없는 저 물결 그속에 잠기면 인생의 년륜인양 주름진 나의 얼굴 금강산의 팔선녀 만연니즘 되려니

아, 6월에 간절한 나의 소원 김정은장군님의 따사로운 축복속에 행복한 인생을 다시 시작하고싶어라!



CNC기술의 패권을 틀어쥐고 최첨단돌파전의 선봉에서 내달리는 최현련하기계종합공장

조국통일 3대원칙은 민족의 앞길을 밝히는 불멸의 통일강령

통일의 밝은 앞길을 열어주시어

역사적인 7.4공동성명 발표 40돐이 하루하루 다가오고있는 지금 우리 겨레는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을 마련하면서 민족자주통일위업에 쌓아올린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깊이 되새기고 있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조성된 내외정세는 조선반도에서 영구분렬의 위험을 막고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한 결정적대책을 취할것을 요구하였다.

이 시기 공화국정부는 북과 남 사이의 대화를 위한 혁신적인 제안들을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투쟁을 전개하였다.

당시 조성된 정세를 깊이 통찰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제 60(1971)년 8월 6일 남조선의 집권당을 포함한 모든 정당, 사회단체 및 개별적인 인사들과의 폭넓은 협상방향을 제시하시어 북남대화의 길을 열어놓으셨다.

북남대화를 일삼던 남조선의 집권세력은 공화국정부의 성의에 있는 노력과 주동적인 대화제의에 의하여 마침내 대화의 땅에 나오지 않을수 없었다. 이렇게 되어 나라가 분열된이래 수십년만에 북과 남사이의 접촉과 대담들이 진행되게 되었고 주제

61(1972)년 5월에는 평양에서 북남고위급정치회담이 열리게 되었다.

주제 61(1972)년 5월 3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북남고위급정치회담에 참가하기 위하여 평양에 온 남측대표를 접견해주셨다.

동측대결의 죄많은 과거사로 하여 주눅이 들어있던 남측대표를 너그럽게 맞아주시어 아버지수령님께서는 조국을 통일하기 위하여서는 통일문제해결의 기초로 될수 있는 근본원칙을 옳게 세우는데가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라고 하시면서 생방이 합의하여 세운 근본원칙이 있어야 북과 남이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할수 있으며 나라를 통일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풀어나갈수 있다고 간곡히 말씀하시었다. 그리시면서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반드시 외세의 간섭이 없이 자주적으로, 민족대단결을 도모하는 원칙에서 평화적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은 통일위업실현의 근본조약으로서 진정으로 나라의 통

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받아들일수 있는 공명정대하고 합리적인 원칙이었다.

하기에 아버지수령님의 말씀에서 깊은 감명을 받아안은 남측대표는 수령님께서 밝혀주시는 조국통일의 3대원칙을 《통일의 큰기둥으로 삼을것》라고 거듭 지지찬동의사를 표시하였다.

아버지수령님의 정력적인 령도가 있어 주제61(1972)년 7월 4일 북과 남은 조국통일3대원칙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7.4공동성명을 공식발표하였다.

역사적인 7.4공동성명의 발표, 그것은 우리 민족의 통일위업에 합의하여 세운 근본원칙이 있어야 북과 남이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할수 있으며 나라를 통일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풀어나갈수 있다고 간곡히 말씀하시었다. 그리시면서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반드시 외세의 간섭이 없이 자주적으로, 민족대단결을 도모하는 원칙에서 평화적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은 통일위업실현의 근본조약으로서 진정으로 나라의 통

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받아들일수 있는 공명정대하고 합리적인 원칙이었다.

하기에 아버지수령님의 말씀에서 깊은 감명을 받아안은 남측대표는 수령님께서 밝혀주시는 조국통일의 3대원칙을 《통일의 큰기둥으로 삼을것》라고 거듭 지지찬동의사를 표시하였다.

아버지수령님의 정력적인 령도가 있어 주제61(1972)년 7월 4일 북과 남은 조국통일3대원칙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7.4공동성명을 공식발표하였다.

역사적인 7.4공동성명의 발표, 그것은 우리 민족의 통일위업에 합의하여 세운 근본원칙이 있어야 북과 남이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할수 있으며 나라를 통일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풀어나갈수 있다고 간곡히 말씀하시었다. 그리시면서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반드시 외세의 간섭이 없이 자주적으로, 민족대단결을 도모하는 원칙에서 평화적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은 통일위업실현의 근본조약으로서 진정으로 나라의 통

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받아들일수 있는 공명정대하고 합리적인 원칙이었다.

하기에 아버지수령님의 말씀에서 깊은 감명을 받아안은 남측대표는 수령님께서 밝혀주시는 조국통일의 3대원칙을 《통일의 큰기둥으로 삼을것》라고 거듭 지지찬동의사를 표시하였다.

아버지수령님의 정력적인 령도가 있어 주제61(1972)년 7월 4일 북과 남은 조국통일3대원칙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7.4공동성명을 공식발표하였다.

역사적인 7.4공동성명의 발표, 그것은 우리 민족의 통일위업에 합의하여 세운 근본원칙이 있어야 북과 남이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할수 있으며 나라를 통일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풀어나갈수 있다고 간곡히 말씀하시었다. 그리시면서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반드시 외세의 간섭이 없이 자주적으로, 민족대단결을 도모하는 원칙에서 평화적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은 통일위업실현의 근본조약으로서 진정으로 나라의 통

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받아들일수 있는 공명정대하고 합리적인 원칙이었다.

하기에 아버지수령님의 말씀에서 깊은 감명을 받아안은 남측대표는 수령님께서 밝혀주시는 조국통일의 3대원칙을 《통일의 큰기둥으로 삼을것》라고 거듭 지지찬동의사를 표시하였다.

아버지수령님의 정력적인 령도가 있어 주제61(1972)년 7월 4일 북과 남은 조국통일3대원칙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7.4공동성명을 공식발표하였다.

역사적인 7.4공동성명의 발표, 그것은 우리 민족의 통일위업에 합의하여 세운 근본원칙이 있어야 북과 남이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할수 있으며 나라를 통일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풀어나갈수 있다고 간곡히 말씀하시었다. 그리시면서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반드시 외세의 간섭이 없이 자주적으로, 민족대단결을 도모하는 원칙에서 평화적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은 통일위업실현의 근본조약으로서 진정으로 나라의 통

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받아들일수 있는 공명정대하고 합리적인 원칙이었다.

하기에 아버지수령님의 말씀에서 깊은 감명을 받아안은 남측대표는 수령님께서 밝혀주시는 조국통일의 3대원칙을 《통일의 큰기둥으로 삼을것》라고 거듭 지지찬동의사를 표시하였다.

아버지수령님의 정력적인 령도가 있어 주제61(1972)년 7월 4일 북과 남은 조국통일3대원칙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7.4공동성명을 공식발표하였다.

역사적인 7.4공동성명의 발표, 그것은 우리 민족의 통일위업에 합의하여 세운 근본원칙이 있어야 북과 남이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할수 있으며 나라를 통일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풀어나갈수 있다고 간곡히 말씀하시었다. 그리시면서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반드시 외세의 간섭이 없이 자주적으로, 민족대단결을 도모하는 원칙에서 평화적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은 통일위업실현의 근본조약으로서 진정으로 나라의 통

력사적인 7.4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은 통일문제를 민족의 의사와 리익에 맞게 민족자재의 힘으로 풀어나갈수 있는 근본방향과 근본방도를 밝혀주는 조국통일의 근본초석이다.

조국통일3대원칙에는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생명처럼 귀중히 여기는 민족자주정신과 민족의 화해와 대단결을 이룩하여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려는 숭고한 조국애와 민족애가 깃들여 있다.

민족자주는 민족문제 해결의 핵이며 조국통일운동의 생명선이다.

70년을 가까이하고있는 민족분열을 하루빨리 끝장내는것은 전체 조선민족애에 나르고있는 최대의 애국과제이다. 민족분열의 장본인이고 통일의 암적존재인 외세는 절대로 우리 민족에게 통일을 선사하지 않는다. 외세의 간섭과 지배를 배격하는 자주적방향을 가지지 않고서는 조국통일운동에서 제기되지 그 어떤 문제도 우리 민족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해결할수 없다.

통일에 리해관계를 가지는것도 우리 민족이고 통일문제해결의 주인도 다름아닌 우리 민족이다. 민족자주를 실현하여 통일위업실현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에 맞게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첫 자리에 놓고 풀어나갈 때에만 조국통일운동은 자기의 궤도를 따라 확신성있게 나아갈수 있다.

이 땅에서 또다시 전쟁이 터진다면 우리 민족에게 불행과 고통만이 들쭉날쭉 될것이라는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조국통일과 민족번영의 근본보장인 평화를 수호하는것은 온 겨레의 삶이 려진, 미래와 직결된 사활적인 문제이다.

민족대단결은 자주적평화통일의 근본전제이며 조국통일의 본질적내용이 된다.

우리는 민족의 생존방식이며 민족의 위력은 곧 단결에 있다. 지나온 인류역사는 단결된 민족만이 자기의 존재를 유지할수 있고 민족성을 고수하면서 통일번영을 안아올수 있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전민족의 대단결을 대신할수 있는 힘은 없다. 우리 민족이 대단결을 이룩하여 전민족이 하나로 굳게 뭉치면 통일의 길에 가로놓인 그 어떤 난관과 시련도 뚫고나갈수 있

다. 온 민족이 화합하고 하나로 단합한다면 그것이 곧 조국통일이다.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3대원칙이야말로 우리 겨레의 조국통일운동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는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이다.

7.4공동성명의 발표는 온 겨레에게 통일의 새로운 희망을 안겨준 역사적사건이었다.

우리 민족은 정세가 어떻게 변하고 환경이 어떻게 달라지는 조국통일3대원칙을 확고히 고수하여야 하며 이 원칙에 철저히 의거하여 조국통일운동을 힘차게 벌어나가야 한다.

조국통일3대원칙은 오늘 6.15북남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4선언에 그대로 구현되어 자주통일시대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고있다.

북과 남, 해외의 우리 겨레는 7.4공동성명을 통하여 내외에 천명된 조국통일3대원칙을 변함없이 높이 들고 민족자주위업, 조국통일위업을 반드시 성취하고야말것이다.

김철민

다. 온 민족이 화합하고 하나로 단합한다면 그것이 곧 조국통일이다.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3대원칙이야말로 우리 겨레의 조국통일운동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는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이다.

7.4공동성명의 발표는 온 겨레에게 통일의 새로운 희망을 안겨준 역사적사건이었다.

우리 민족은 정세가 어떻게 변하고 환경이 어떻게 달라지는 조국통일3대원칙을 확고히 고수하여야 하며 이 원칙에 철저히 의거하여 조국통일운동을 힘차게 벌어나가야 한다.

조국통일3대원칙은 오늘 6.15북남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4선언에 그대로 구현되어 자주통일시대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고있다.

북과 남, 해외의 우리 겨레는 7.4공동성명을 통하여 내외에 천명된 조국통일3대원칙을 변함없이 높이 들고 민족자주위업, 조국통일위업을 반드시 성취하고야말것이다.

김철민

다. 온 민족이 화합하고 하나로 단합한다면 그것이 곧 조국통일이다.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3대원칙이야말로 우리 겨레의 조국통일운동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는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이다.

7.4공동성명의 발표는 온 겨레에게 통일의 새로운 희망을 안겨준 역사적사건이었다.

우리 민족은 정세가 어떻게 변하고 환경이 어떻게 달라지는 조국통일3대원칙을 확고히 고수하여야 하며 이 원칙에 철저히 의거하여 조국통일운동을 힘차게 벌어나가야 한다.

조국통일3대원칙은 오늘 6.15북남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4선언에 그대로 구현되어 자주통일시대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고있다.

북과 남, 해외의 우리 겨레는 7.4공동성명을 통하여 내외에 천명된 조국통일3대원칙을 변함없이 높이 들고 민족자주위업, 조국통일위업을 반드시 성취하고야말것이다.

김철민

다. 온 민족이 화합하고 하나로 단합한다면 그것이 곧 조국통일이다.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3대원칙이야말로 우리 겨레의 조국통일운동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는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이다.

7.4공동성명의 발표는 온 겨레에게 통일의 새로운 희망을 안겨준 역사적사건이었다.

우리 민족은 정세가 어떻게 변하고 환경이 어떻게 달라지는 조국통일3대원칙을 확고히 고수하여야 하며 이 원칙에 철저히 의거하여 조국통일운동을 힘차게 벌어나가야 한다.

조국통일3대원칙은 오늘 6.15북남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4선언에 그대로 구현되어 자주통일시대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고있다.

북과 남, 해외의 우리 겨레는 7.4공동성명을 통하여 내외에 천명된 조국통일3대원칙을 변함없이 높이 들고 민족자주위업, 조국통일위업을 반드시 성취하고야말것이다.

김철민

다. 온 민족이 화합하고 하나로 단합한다면 그것이 곧 조국통일이다.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3대원칙이야말로 우리 겨레의 조국통일운동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는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이다.

7.4공동성명의 발표는 온 겨레에게 통일의 새로운 희망을 안겨준 역사적사건이었다.

우리 민족은 정세가 어떻게 변하고 환경이 어떻게 달라지는 조국통일3대원칙을 확고히 고수하여야 하며 이 원칙에 철저히 의거하여 조국통일운동을 힘차게 벌어나가야 한다.

조국통일3대원칙은 오늘 6.15북남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4선언에 그대로 구현되어 자주통일시대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고있다.

북과 남, 해외의 우리 겨레는 7.4공동성명을 통하여 내외에 천명된 조국통일3대원칙을 변함없이 높이 들고 민족자주위업, 조국통일위업을 반드시 성취하고야말것이다.

김철민

조국통일의 근본초석

평화통일원칙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에 맞게 통일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수 있는 근본방도를 밝힌 원칙이다.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가 보장되지 않는 속에서는 겨레의 숙원인 조국통일도, 민족의 존재와 발전도 기대할수 없다.

외세를 등에 업은 남조선호전세력의 무분별한 북침행적정세동으로 말미암아 오늘 조선반도에는 전쟁의 검은 구름이 무겁게 드리워져있다.

단결은 민족의 생존방식이며 민족의 위력은 곧 단결에 있다. 지나온 인류역사는 단결된 민족만이 자기의 존재를 유지할수 있고 민족성을 고수하면서 통일번영을 안아올수 있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전민족의 대단결을 대신할수 있는 힘은 없다. 우리 민족이 대단결을 이룩하여 전민족이 하나로 굳게 뭉치면 통일의 길에 가로놓인 그 어떤 난관과 시련도 뚫고나갈수 있

6.15 지지열풍은 막을수 없다

력사적인 북남공동선언을 철저히 리행해나가기려는 우리 겨레의 통일애국적의지는 갈수록 고조되고있다.

해내의 물론 국제사회에서까지 울려나오고있는 격찬의 목소리들은 이미 실천을 통하여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뚜렷이 확증된 북남공동선언들에 대한 내외의 확고한 지지찬동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각도 리명박보수집권세력은 북남공동선언리행을 요구하여 투쟁에 떨쳐나선 남조선인민들을 《종북세력》, 《친북좌파》로 몰아 《보안법》에 걸이 가혹하게 탄압하고있다. 더우기 제명을 다 산송장인 리명박패당이 외세와 결탁하여 북침전쟁연습소동을 벌리면서 특대형반공화국행위들을 일삼고있는 사실은 온 겨레의 치솟는 격분을 불러일으키고있다.

리명박보수패당이 통일을 바라는 민족의 지향에 도전하여 동측대결과 전쟁책동에 혈안이 되여도 겨레의 가슴속에 소중히 간직된 6.15의 정신은 결코 말살할수 없다. 이미 알려진바와 같이 남조선에서는 6월초부터 6.15공동선언발표 12돐을 맞으며 기념대회, 기자회견, 《남북작가 풍경전》, 통일념원마라손대회, 통일특별수업, 기념식과 문화제, 특별강연, 《남북평화기도회》 등 행사들이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6.15, 10.4 자주통일평화번영 결의대회》로부터 시작된 행사에는 남조선의 여러 정당, 시민사회단체들과 각계층 인민들이 참



6.15공동선언리행을 요구하여 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

가하였다. 그들은 기념토론회와 특별강연에서 《6.15, 10.4선언을 지키고 실천하는 길만이 평화를 지키고 통일을 앞당기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면서 6.15의 력사적정신을 되새기고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적극 투쟁할것을 호소하였다.

특히 민주통합당의 《대선》예비후보자들과 서울시장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장들은 6.15기념행사에 참가하여 《국회》에 《6.15, 10.4남북공동선언 국가기본법》을 제정추진할것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남조선의 광범한 6.15지지세력들은 6.15공동선언은 민족통일의 방도와 당면과제를 제시한 《대단히 의의있는 합의문》이라고 평가하면서 리명박역도의 집권 5년은 《잃어버린 5년》이며 이 기간은 《화해협력정책의 소중함을 크게 깨닫게 한 나날》이었다고 평가하였다.

참가자들은 한결같이 《6.15, 10.4 자주통일평화번영 결의대회》를 수렴하는것이 오늘날 우리앞에 나선 최대의 과업》이라고 하면서 《6.15, 10.4선언을 중심으로 단결하여 올레 (대선)에서 진보개혁세력에 의한 《정권》교체를 이루어야 한다. 하나가 되어 승리해야 한다. 력사를 다시 진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남조선인민들은 이에 대해 전하면서 북남관계가 얼어붙은 속에서도 6.15기념행사가 성황리에 개최되고 광범한 계층이 《6.15공동선언의 정신을 찬양하고



역사적인 북남공동선언의 기치밑에 조국통일운동을 계속적으로 벌여나가자!

6.15 북남공동선언 발표 12돐 기념 국제토론회 진행

6.15 북남공동선언 발표 12돐에 즈음하여 15일 우크라이나의 키예브에서 국제토론회가 진행되었다.

로씨야, 우크라이나, 벨라루시의 주체사상 및 선군정치연구조직들,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지역 주체사상과 선군정치연구협회 국제연합인사들과 성원들, 학계 인사들이 토론회에 참가하였다.

토론회에서는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지역 주체사상과 선군정치연구협회 국제연합총서기인 로씨야에청년선군정치연구협회 위원장 미하일 뱌첸코, 우크라이나 《선군의 보검》 주체사상연구협회 위원장 니콜라이 볼리슈크, 벨라루시 2.16평명 주체사상

과 선군정치연구청년협회 위원장 올레그 노비코프가 토론하였다.

토론회자들은 한평생 조국통일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조국통일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고려민주평화공화국창립방향을 제시하시어 통일의 근본초석을 마련해주신데 대하여 격찬하였다.

그들은 또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통일방향을 조국통일3대원칙으로 정리해주셨으며 력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을 발표하도록 하시

《누가 통일의 원수인가》 지역기구 인터넷에 글 발표

력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 발표 12돐에 즈음하여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지역 주체사상과 선군정치연구협회 국제연합이 15일 인터넷홈페이지에 《통일 6.15와 그의 원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글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2000년 6월 평양에서는 조선민족분열사상 치음으로 북남수뇌분들의 상봉이 마련되고 우리 민족끼리를 기본리념으로 하여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민족공동의 번영과 통일을 이룩해나갈데 대한 력사적인 6.15공동선언이 발표되었다.

공동선언은 조선민족의 전폭적인 지지와 공감을 불러일으켰으며 조선의 통일위업수행에서는 국적인 전환이 일어나게 되었다.

특히 2007년에는 6.15공동선언의 실천강령인 10.4선언이 발표되어 통일의 앞길에 보다 밝은 전망이 펼쳐지게 되었다고 지적하였다.

글은 《누가 통일의 원수인가》라는 소제목을 달고 다음과 같이 까뻐했다.

남조선의 리명박패당은 집권된 시기부터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전면부정해나갔다.

북남협력사업이 제대로 진

행되지 못하도록 꾀방을 놓고 모략적인 사건들을 연이어 꾸며내어 대결국면을 조장하였다.

글은 전체 조선민족은 6.15공동선언을 고수하고 평화와 통일, 번영의 시대를 안아오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섰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조선인민은 분렬과 대결의 원흉인 리명박역적패당에게 전민족의 이름으로 사형선고를 내렸다.

조선민족은 통일된 강성국가를 기어이 건설하고야말것이다.

본사기자

어머니조국의 품에 안겨 두번다시 태어났다

남조선에 유인되었던 여성 국내외 기자들과 회견

남조선에 유인되었다가 공화국의 품으로 돌아온 박정숙녀성이 28일 인민문화관에서 국내외 기자들과 회견하였다.

기자회견에는 우리 나라 출판 보도부분과 총련의 기자들 그리고 중국, 로씨야, 미국, 일본의 기자들이 참가하였다.

사회주의조국에 체류하고있는 해외동포들이 방청으로 참가하였다.

기자회견에서는 먼저 함경북도 청진시 라남구역 라복1동에서 살다가 피뢰들의 유인에 걸려 남조선에 끌려갔던 박정숙녀성이 발언하였다.

그는 기자회견장에 나서니 수척스러운 과거로 하여 머리를 들 수 없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일시적인 난관을 이겨내지 못하고 장사에 눈이 어두워다니다가 종당에는 피뢰정보원놈들의 간계에 넘어 조국과 정다운 이웃들, 일가친척들을 배반하고 범죄의 길로 굴러떨어졌던 사람이다.

예로부터 나라를 배반한 죄는 제일 크고 용서받을수 없다고 하였다.

하지만 경에 하는 김정은장군님께서는 나를 크게 탓할 대신 오히려 사랑의 품에 안아주시고 재생의 삶을 누릴수 있도록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었다.

정말 꿈을 꾸는것만 같고 도무지 이 현실이 믿어지지 않는다. 나라에 보탬이 없는 죄인인데 불과하지만 우리 인민들과 세상사람들에게 꼭 하고싶은 말이 있어 기자회견을 요청하였다.

이러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였다.

조선중앙통신사 기자: 피뢰들의 유인전술에 걸려 남조선으로 끌려갔다고 했는데 그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해주셨으면 한다.

대답: 적들의 꾀임에 빠져 범죄의 길에 들어서게 된것은 전적으로 나의 사상정신상태가 잘못됨에서부터 시작되었던 한다.

그때 나의 머리속에는 어머니 조국과 손을 잡고 강성국가건설에 한몸바치는데서 삶의 보람을 찾겠다는 생각보다 자기만을 생각하는 리기주의사상이 더 크게 지배하였다.

결국 눈앞의 어려움만을 생각하였고 나중에는 남조선에 있는 아버지를 중국에서 만나 돈을 얻어보려는 망상까지 하게 되었다.

그러하여 2006년 3월 29일 밤 남몰래 비법일경하였다. 아버지를 만나면 돈을 얻을수 있다는 미련한 생각을 품고 지정박으로 내뿜은 그 결심이 나라앞에 얼마나 큰 죄를 짓는 길인가를 미처 몰랐다.

중국동북망에 이른 나는 가슴을 조이며 거처지를 찾아 여기저기 헤매다가 어느 한 벽돌집에서 문을 열어주어 들어가게 되었다. 그 집주인은 조선말을 할줄 알았는데 사연을 듣고 아들과 무엇인가 토론하더니 나를 움막에 있게 하였다.

하루는 집주인이 이제 어떤 사람이 전화를 걸어오겠는데 물어보는 말만 대답하고 다른 말은 일체 하지 말라고 하였다.

그후 전화가 걸려왔는데 전화하는 사람은 나의 이름과 생년월일, 형제관계를 알아보고는 전화를 끊었다.

그로부터 3~4일 지나 집주인이 나에게 아버지를 만나려면 배를 타고 청다오(청도)에 가야 한다고 하면서 나를 차에 태워 다리엔(대련)의 어느 한 곳에 데려갔다.

곳에서 약 일주일간 머물러 있었는데 하루는 《사정》이라고 하는자가 와서 나를 사진찍어가는데 있었다.

후에 안 일이지만 그자는 피뢰들에게 매수되어 우리 사람들을 남조선으로 끌어가는것을 업으로 하는 놈이었다.

이후후 그자가 나타나 이제

는 아버지를 만나러 가자고 하면서 차에 태워 어디론가 가는 것이었다.

이렇게 나는 피뢰들의 각본에 따라 이놈 저놈의 손으로 넘겨지게 되었다.

6월 28일 오후 4시경 단둥(단둥)항에서 한 여성과 함께 《청다오로 가는 배》에 몸을 싣게 되었다.

다음날 아침 9시경 배가 정박하자 함께 배에 올랐던 그 여성은 나의 위조증명서를 바다에 던져버리고 배에서 내렸다.

그리고 어느 한 건물 1층 위생실앞에 나를 세워놓고 이제 누가 울것이라고 하고는 가버렸다.

이어 어떤 남자가 건물 3층으로 데려갔다.

방문을 열고 들어가니 얼굴이 검죽죽하고 긴박하게 생긴자가 책상우에 놓여있는 지합에서 무슨 음료를 꺼내주면서 《진실만을 말씀하게 하는 약이다.》라고 빈정거리며 여기서 남쪽땅이라고 말하였다.

그제서야 나는 남조선에 발을 들여놓았다는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청다오로 가는 사람인데 배를 잘못 탄것 같다. 저 배를 타고 당장 돌아가겠다.》고 소리치며 항변하였다.

그러나 놈들은 울면서 발버둥치는 나에게 《여기는 가고싶으면 맘대로 가는대가 아니다.》라고 하며 끝내 차에 태워가지고 어디론가 데려갔다.

나는 놈들에게 아버지를 만나려고 하다가 남쪽에 잘못 왔으니 빨리 돌아가게 해달라. 그리고 아버지를 만나게 해달라고 들이댔지만 들은척도 하지 않았다.

놈들은 공화국에서의 경력과 생활경위 등을 물어보고 그에 대해 쓰게 하고는 얼리기도 하고 위협도 하였으며 지어 조롱까지 하며 모욕을 주었다.

한번은 《탐검실》이라고 쓴 방에 나를 끌고가 손과 발, 가슴에 전기줄을 붙여놓고 불을 번쩍이며 묻는 말에 솔직하게 대답해야 한다고 강박하였다.

지금도 무서운 공포와 압박속에서 시달리던 때를 생각하면 자다가도 소스라쳐 깨어나곤 한다.

이렇게 20일정도 취조를 받은 후에야 놈들에게 끌려 아버지를 만나러 갔다. 그런데 병원침대에 누워있는 아버지는 뇌수술을 받고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식물인간이 된 상태였다.

그때에야 나는 놈들에게 속히 왔다는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하여 2006년 3월 29일 밤 남몰래 비법일경하였다.

지금도 우리 공화국주변에는 피뢰정보원의 돈을 받아먹고 우리 주민들을 유괴하는자들이 줄을 늘리고 걸려들기만 기다리고 있다.

총련 조선통신사 기자: 박정숙녀성이 남조선으로 끌려나가 6년간 살았는데 그동안 어떻게 생활하였는지 말해달라.

대답: 아버지는 비록 수척지만 이북동생들도 있고 친척들도 있으니 그들의 도움을 받으면 그럴지럭 살아갈수 있을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천진한 생각이었다.

이북동생은 만날 때마다 말뿐이고 더우기 자기에게 피해가 올라

볼 나를 경계하는 눈치였다.

할수없이 80살 되는 이모사촌 오빠의 집을 찾아가 살고있는 형님의 간병을 해주며 살았는데 친척집에 얹혀산다는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다.

재정적부담때문에 더 있지 못하고 사촌오빠가 알선해준 한 로인의 집에서 간병노동자로 하였다.

나중에는 운신도 못하고 대소변도 가지지 못하는 90살 나이의 로인의 집에서 그의 시중을 들었다.

그야말로 돈에 팔린 가련한 노예나 다름없었다.

같은 수치고 모욕을 참아가며 지하철도역과 아바트복도, 승강기청소 등 일거리라면 다치는대로 하였다.

이렇게 간신히 살아가는데 여기에 걸음걸음 감시와 전화도청까지 끈질기게 계속되어 공포와 불안, 초조감속에 살지 않으면 안되었다.

한번은 라원주라는 여성의 소개로 공업원료를 생산하는 한 회사에 발을 들여놓았다가 사장놈에게 사기만 당하였다.

억울하고 분하여 매일같이 회사를 찾아가더니 사장하였으나 조소와 멸시만 받았다.

은 정신이 거기에만 쏠려있더니 지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해 지하철도계단에서 거꾸러져 무릎을 상하였다.

그러나 돈이 없어 다친 다리를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 지금도 잘 걷지 못한다.

남조선은 정말 썩고 병든 사회이다.

거리에 나가도 온통 사람들을 유혹하는 말들과 광고들로 랑장판을 이루어 뛰가 뛰지 통 알수가 없다.

TV를 켜도 모두 음란하고 퇴폐적이며서 보면 머리가 멍하여 도려 거버리곤 하였다.

들려오는 소리들도 《금은세공방 주인에게 약봉은 술을 먹고 금품을 털어갔다.》나, 《의사들이 환자를 상대로 사기를 쳤다.》나, 《아버지가 법

정을 불리내어 땅과 재산을 빼앗았다.》나, 《에인을 목을 늘려죽이고는 사망보험금을 타먹었다.》나, 《10대의 아이들이 탄불을 피워놓고 동반자살하였다.》나 하는 따위뿐이다.

협약한 세상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살아가기 위해 돈에 미쳐 돌아다녔다.

작년 10월 어느날 밤중에 갑자기 숨이 막혀 경찰병원에 간적이 있었다.

의사라는 놈은 생명이 위급하므로 빨리 보호자부터 데라는 것이었다.

보호자가 없다고 하니 그러면 입원할수 없다고 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었다.

나는 숨이 막히는데다가 야밤삼경에 돌아가야 또다시 실려오겠는데 병원복도에라도 좀 앉아 안정하게 해달라고 애원하였다.

그때도 그들은 막무가내로 나를 뿌리치며 병원밖으로 빨리 벗어나던가 아니면 당장 보호자를 데라고 야단치는 것이었다.

순간 너무도 분격하여 병원이 떠나갈듯 큰소리를 지르고는 정신을 잃고말았다.

의사가 환자를 놓고 보호자를 찾는것은 만약 내가 죽으면 치료

비를 받아내기 위해서였다.

우리 공화국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다.

피뢰당국자들은 누구나 부지런히 일하면 잘살수 있는 사회, 정의와 민주주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라고 입버릇처럼 떠들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사람들을 기만하기 위한 요설이다.

일자리가 없어 실업자가 차넘치고 사회악이 판을 치며 돈이 모든것을 지배하고 인간의 정의라는 찾아볼수 없는 사회, 사람들을 정신문화적으로 타락시키는 썩고 병든 사회가 바로 남조선이다.

로씨야 이따르-따쓰통신사 기자: 일부 사람들이 박정숙녀성처럼 남조선으로 나갔는데 그들의 생활현황, 실태가 어떠한지 이야기해 주셨으면 한다.

대답: 남조선피뢰들은 우리 공화국에서 살다가 남조선으로 나간 사람들을 《탈북자》라고 부른다.

그중에는 조국과 인민을 배반하고 도주한 반역자들도 있지만 놈들이 말하는 《탈북자》들은 나와 같이 일시적인 생활난과 친척방문, 사업상 등의 이유로 조국을 비롯한 주변나라들에 갔다가 피뢰들의 유인, 랑치, 매수책 등에 걸려 남조선으로 끌려간 사람들이다.

그들은 모두 남조선에 발을 들여놓기 바쁘게 피뢰정보원으로 끌려가 중죄인취급을 당하게 된다.

처음 10여일간은 독방에 갇혀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상태에서 항변 한마디 못하고 인권을 무참히 유린당한다.

오죽하였으면 지난해 남조선의 보수언론들에서조차 《탈북자》들의 독방방에 대해 문제시하는 글까지 냈었다.

심문을 받는 기간 그들은 감시자의 가혹한 행태속에 위생실마저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며 녀성들의 경우에는 취조관들의 성노리개대상으로 되고만다.

이렇게 한달 또는 그이상 피뢰정보원에서 온갖 정신육체적고통을 받다가 나오면 《하나원》이 라는데 옮겨지는데 그곳 또한 감옥이나 다름바 없다.

《하나원》은 《탈북자》들에게 《교육》을 시킨다는 뜻인데 아침 5시에 교회에 끌고가는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종일 반공사상을 불어넣고 자본주의사회의 썩어빠진 사상상과 악물강식의 법칙을 주입시킨다.

이 지극지극한 곳에서 석달동안 담당관들의 횡포무도한 압박과 통제, 사방에 설치된 카메라의 감시속에 외출, 면회, 전화도 할수 없다.

이렇게 놈들의 끈질긴 검토와 《교육》을 마친후 사회에 내던져지는데 이때부터 모진 천대와 멸시, 수치고 모욕을 받으며 치렬한 생존경쟁의 싸움판에 뛰어들어야 한다.

《탈북자》들에게 차례지는 일자리란 오물청소, 그릇닦기, 시종들기 등 누구도 하기 싫어하는 가장 비천하고 어려운 일뿐이다.

녀성들인 경우 유흥업소에 매매되거나 음란한 화상촬영에 내몰리는 등 구렁렁이에 빠지고 있다.

더우기 그들의 《주인등록증》에는 별도의 번호가 적혀있어 어디를 가나 외면당하고있다.

극심한 생활난과 그림자처럼 뒤따르는 사회적인 랑태와 파도림까지 계속되다나니 그들은 정신적불안과 만성적인 괴로감 등으로 각종 병마에 시달리고 있다.

어쩌다 직업을 구해도 또 떼를 가바 매일같이 걱정하며 갖은 고역을 당하고 병에 걸려도 돈이 없어 제때에 치료받지 못하여 죽는 길밖에 없다.

때문에 모두 타락하여 마약과 사기, 성매매 등 범죄의 길에 빠져들고있다.

출판물들의 자료에 의하면 남조선이 세계적으로 자살률이 1위이며 그중에서 《탈북자》들의 자살률은 어느 사람들의 5배에 달한다.

김옥란이라는 젊은 녀성은 나에게 《남조선 사회에 환멸을 느낀다. 공화국으로 돌아갈 결심이다.》라고 하면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어느 한 유흥집에 들어가 온갖 수모와 멸시를 받으면서도 참으며 일하였다.

그러나 돈을 받을수 없게 되자 절망감에 빠져 끝내 자살하고말았다.

현재 《탈북자》들은 부지런히 일하면 되겠지 하는 희망을 가지고 애쓰지만 더욱 어려워만지는 비참한 생활처지를 한탄하며 때늦은 후회를 하고있다.

그리고 명절날, 생일날이면 고향이 그리고 조국을 잊지 못해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있다.

지금 그들은 어지러운 남조선 사회를 저주하고 자신들을 원망하며 공화국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있다.

그러나 자기들이 나라앞에 지는 죄때문에 섰듯 결심을 내리지 못하고있으며 감시와 통제가 그림자처럼 뒤따르기에때문에 어찌지 못하고있다.

나는 이 기회에 그들에게 말하고싶다.

본의든 본의아니든 어머니 조국을 두고 간간 사람들은 이제라도 사람답게 살려 한다면 저주받은 남조선사회를 박차고 공화국의 품으로 주저없이 돌아와야 한다.

《하나원》을 마친후 사회에 내던져지는데 이때부터 모진 천대와 멸시, 수치고 모욕을 받으며 치렬한 생존경쟁의 싸움판에 뛰어들어야 한다.

《탈북자》들에게 차례지는 일자리란 오물청소, 그릇닦기, 시종들기 등 누구도 하기 싫어하는 가장 비천하고 어려운 일뿐이다.

녀성들인 경우 유흥업소에 매매되거나 음란한 화상촬영에 내몰리는 등 구렁렁이에 빠지고 있다.

더우기 그들의 《주인등록증》에는 별도의 번호가 적혀있어 어디를 가나 외면당하고있다.

극심한 생활난과 그림자처럼 뒤따르는 사회적인 랑태와 파도림까지 계속되다나니 그들은 정신적불안과 만성적인 괴로감 등으로 각종 병마에 시달리고 있다.

어쩌다 직업을 구해도 또 떼를 가바 매일같이 걱정하며 갖은 고역을 당하고 병에 걸려도 돈이 없어 제때에 치료받지 못하여 죽는 길밖에 없다.

때문에 모두 타락하여 마약과 사기, 성매매 등 범죄의 길에 빠져들고있다.

출판물들의 자료에 의하면 남조선이 세계적으로 자살률이 1위이며 그중에서 《탈북자》들의 자살률은 어느 사람들의 5배에 달한다.

김옥란이라는 젊은 녀성은 나에게 《남조선 사회에 환멸을 느낀다. 공화국으로 돌아갈 결심이다.》라고 하면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어느 한 유흥집에 들어가 온갖 수모와 멸시를 받으면서도 참으며 일하였다.

그러나 돈을 받을수 없게 되자 절망감에 빠져 끝내 자살하고말았다.

현재 《탈북자》들은 부지런히 일하면 되겠지 하는 희망을 가지고 애쓰지만 더욱 어려워만지는 비참한 생활처지를 한탄하며 때늦은 후회를 하고있다.

그리고 명절날, 생일날이면 고향이 그리고 조국을 잊지 못해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있다.

지금 그들은 어지러운 남조선 사회를 저주하고 자신들을 원망하며 공화국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있다.

그러나 자기들이 나라앞에 지는 죄때문에 섰듯 결심을 내리지 못하고있으며 감시와 통제가 그림자처럼 뒤따르기에때문에 어찌지 못하고있다.

망간 더러운 인간추물들이다.

이 추악한 인간쓰레기들은 피뢰보수패당의 비위를 맞추어가며 몇푼의 돈을 바라고 반공화국대결에 미쳐날뛰고있다.

지금 피뢰패당은 반공화국대결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있다.

《적십자단체》나, 《자원봉사자》나 하는 이름으로 《탈북자》들에게 돈을 준다고 하면서 여여서는 우리 공화국을 헐뜯고 남조선사회를 미화분식하는 온갖 허위와 악담을 늘어놓거나 구호를 웨쳐대며 시위까지 추동질하고있다.

거짓과 허위로 반공화국대결을 선동하는것이기때문에 사람들이 가지 싫어하고 랑장판이 벌어진 때가 많아 돈으로 꾀어내기 위한 방법을 고안해내고있다.

언제인가 피뢰언론들에서 《탈

버미장군님의 모습을 우려르며 조국을 버리고 더러운 시궁창속에서 헤매는 자신을 저주하고 또 저주하였다.

복잡다단한 우리 가정을 차별 없이 대해주시며 일흔번째 생일을 맞는 어머니에게 생일상도 안겨주시고 아들을 평양음악무용대학(당시)을 졸업시켜 교단에 세워주시였으며 동생을 과분하게 평가해주신 장군님의 은혜를 갚지는 못할망정 내 지금 어디에 와서 무슨 짓을 하고있던 말인가고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것만 같았다.

결단성있게 행동하지 못한 자신을 질책하며 가다가 숨이 지는 한이 있더라도 기어이 조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결심을 굳히게 되었다.

그러던 지난해 12월 우리 인민들을 잘살게 해주시려고 그로록 애쓰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 야전철차에서 너무도 뜻밖에 서거하시었다는 청천벽력같은 비보에 접하자 조국의 하늘을 바라보며 오열을 트드렸다.

장군님께서 돌아가 무릎꿇고 속죄하려고 했는데 이 어찌된 일인가.

죽더라도 기어이 조국땅에 가서 묻히겠다.

나의 온 정신은 공화국으로 향하였고 더이상 무서운것도 없었다.

나는 피뢰정보원놈들의 감시를 따돌리고 저주받은 남조선땅을 떠나 꿈에도 그리던 어머니조국, 공화국의 품에 다시 입었다.

민주조선사 기자: 그처럼 그리던 조국의 품에 안기게 되었는데 공화국으로 돌아온 지금 심정이 어떠한지 말해주셨으면 한다.

대답: 어머니조국은 발을 잘못 디디어 천길낙락에 굴러떨어졌던 나에게 생명을 부어주었다.

놀위는 가슴을 진정하며 비행기승강대에서 내리는 나를 해당 일군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을 때 꺾꺾 놀라 어안이 빙빙하였다.

최고령을 채워도 할 말이 없는 나였다.

그날밤 나는 별이 총총한 평양의 밤하늘을 보고 또 또 머뭇 생각하였다.

조국이란 두 글자가 이렇듯 정답고 크나큰것이구나, 내 이제는 죽어도 원이 없다.

그러나 그때까지만 해도 얼마나 크나큰 사랑과 은정이 나를 기다리고있는지 상상도 못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장군님께서는 나의 죄 많은 과거를 조금도 탓하지 않으시고 대대같은 사랑과 은정을 안겨주시었다.

김정은장군님께서는 죄인이나 다름없는 나를 김원균명칭 평양음악대학 교단에 서있는 아들과 함께 평양에 모여살도록 해주셨다.

나는 남들이 허리띠를 조이며 강성국가건설에 피와 땀을 바칠 때 저만 잘살겠다고 어머니 조국을 버렸던 배운당당한 죄인이었다.

재생의 삶을 안겨 주신 경애하는 김정은장군님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기 위해 만수대 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과 어머니장군님의 동상을 찾았다.

지난날을 속죄하고 대원수님들께 못 다한 충정을 합쳐 헌내 공화국에 대한 생각, 조국으로 돌아오려는 생각을 잊어본 적이 없었다.

이 목적을 달성해보려고 수없이 노력했지만 들장날가봐 누구와 러놓고 말해볼수도 없고 또 걸음걸음 돈이 있어야만 했다.

경애하는 김정은장군님께서는 이 세상에 없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꼭 같은 신 경애하는 김정은장군님 계시여 나는 두번다시 태어났다.

박정숙녀성은 기자회견을 마치면서 경애하는 김정은장군님께 대를 이어 충정을 다해나갈 불라는 일념을 담아 아들, 머느리와 함께 노래 《못 잊을 나의 길》을 절절하게 불렀다.

그는 아들, 머느리와 함께 위대한 수령님의 초상화와 어머니장군님의 초상화를 우러러 감사의 인사를 올렸다.

본사기자



아들, 머느리와 함께 노래 《못 잊을 나의 길》을 절절히 부르는 박정숙녀성(가운데)

부패로 시작되어 부패로 망하는 《실용정부》

권력을 가로챈 특등사기군

남조선에서 특권층인물들의 부정부패행위가 계속 드러나 커다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4일 이전 《국회》의 장 박희태가 돈봉투사건으로 하여 징역 1년형을 구형받았는가 하면 5일에는 지난해 10.26 《보통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홈페이지를 디도스공격한 전 《한나라당》 소속 《국회》 의원의 비서관 2명이 징역 7년형을 받았다.

이에 앞서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최시중과 전 지식경제부 차관 박영준이 한 기업으로부터 뭉치돈을 받고 이를 리명박의 《대통령》 당선을 위한 부정 《선거》 자금으로 리용한 혐의에 걸려 구속되었다.

신용한것은 걸려든 범죄자 도적이 두목도 도적이요 그 졸개도 도적이라는 말이 있다.

탈세와 땅투기 등 너절한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 부패를 일삼아 온 청와대 주인 리명박과 그를 상전으로 하는 수하졸개들은 똑같은 부정부패, 사기협잡의 능수능민이다.

얼마전 남조선에서는 리명박의 심복중의 심복인 전 《국회》의 장 박희태가 《한나라당》(지금의 《새누리당》)의 돈봉투사건으로 징역을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남조선민심은 《(국회) 의장이 구대정치 주범으로 밝혀져 사죄하고 사법처리 대상으로 전락한것은 우리 정치의 비극》이라며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있다.

돈으로 권력을 사고 돈에 의해 정치가 좌우되며 권력

들이 하나와 같이 리명박의 측근인물들이거나 역도와 이렇듯저렇듯 연결된 자들이라는 것이다.

하기에 남조선 각계는 《MB집권기간에 권력형부정부패가 도약되었다.》고 하면서 《권력형부정부패의 몸통은 MB》라고 적어 서 규탄하고 있다.

옳은 주장이다. 리명박으로 말하면 위장정입, BBK주가조작사건, 내곡동주래부지구입사건 등 소문난 부등산투기군, 상습적인 금융사기범이다. 그가 집권하여 감추어놓은 돈만 해도 무려 8 000억 원에 달한다. 이 많은 돈이 어디에서 생겼겠는가 불보듯 명백하다.

최근에도 리명박과 보수 집권세력이 BBK주가조작사

건을 덮어버리기 위해 가짜 편지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각계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BBK주가조작사건은 리명박이 1990년대말 김경준과 함께 해외에 BBK회사라는 것을 내고 주가를 조작하여 검은돈을 횡횡한 사건으로서 지난 2007년 《대통령 선거》 당시 리명박에게 있어서 가장 큰 허를 찌르던 사건이었다. 만일 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면 리명박은 《대통령》은 고사하고 감옥신세를 지야 했다.

이로부터 《한나라당》(《새누리당》의 전신)은 이 사건을 덮어버리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그중의 하나가 이번에 꼬리가 드러난 가짜편지사건이다. 당시 이 사건의 핵심증

인인 김경준이 사회 각계의 요구에 따라 남조선에 송환되자 보수패당은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계획적인 입국》이라고 뭉고늘어지면서 그 무슨 《편지》라는 것을 들고나왔다.

그리고는 편지내용에 있는 표현을 걸고들면서 《김경준이 여권(당시 열린우리당)의 대가를 받고 입국》했다고 법석고야했다.

그리고는 그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다.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발한다 하며 복잡소동을 부렸다.

원래 문제의 편지가 가짜인가 진짜인가 하는것은 그것이 나라날 때부터 제기되었다. 당시 검찰당국은 필적감정을 통해 그 편지가 신경화가 쓴것이 아니라는것을 변히 말면서도 권력에 아부

하여 이 사건을 호지부치해 버리고말았다.

하지만 진실은 언제든 밝혀지마련이다.

얼마전 신경화의 동생 신명이 그 편지는 자기가 쓴것이라고 실로하였다. 그러면서 《당시 수감중이던 형(신경화)을 사면해주겠다.》는 《한나라당》의 갑언리설에 속아 가짜편지를 쓰게 되었다고 토설하면서 리명박의 형 리상두와 최시중이 이번 일을 조종했다고 폭로하였다.

지금 이 사건에 홍준표, 은진수를 비롯한 리명박의 측근인물들이 줄줄이 걸려 들고있다.

아직 사건진상이 완전히 밝혀지지는 못했지만 가짜편지사건은 리명박이야말로 파렴치한 부정부패원흉이며 권력을 가로챈 특등사기군이라는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본사기자 주광일

수사결과가 무엇을 보여주는가

정조사와 《청문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언론들도 《전형적인 파주 기, 면죄부수사》, 《술한 의혹남긴 내곡동사건》, 《리명박앞에서 작아지는 검찰》이라는 제목의 글들

여기에서 리명박이 부지구입을 은폐하기 위해 리시형의 이름으로 땅을 사들이고 그나마도 세금을 내지 않은것은 남조선의 《부동산실명제법》과 《상속 및 증여세법》에 철저히 위반되는것이기때문이다.

그뿐만아니 파주부지구입에 들인 막대한 돈을 인민들의 혈세로 이루어진 《정부예산》으로 충당시킨것은 《국고금회령제》에 해당한다.

여기에서 부지소유자를 미국으로 강제로 이주시킨 리유를 들면 그의 죄는 엄청나 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놓고볼 때 리명박 부지구입사건은 철두철미 《대통령》의 직권을 악용한 특대형범죄행위로서 보통사람들같은 감옥신세는 물론 종신형을 언도받았을 것이다.

사실이 이러한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의 파썸검찰이 리명박의 죄를 덮어버리는 《수사결과》라는것을 발표

하였으니 사람들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살아있는 권력》에 붙어 기생하는 남조선검찰의 가혹한 물골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이번엔 검찰은 수개월간에 걸치는 수사기간 객관성과 과학성에 기초한 물질적증거도 없이 사건의 주범인 리시형의 서면진술과 청와대의 구두진술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 수사를 종결시켰던것이다.

벤벤스러운것은 리명박이 검찰의 수사결과를 야당이 비난하는데 대해 《그것이 바로 정치》라며 코웃음을 친것이다.

이 말을 요약하면 《대통령》이 하는 모든 일은 절대로 《법》에 위반되는것이 아니며 그것을 감싸주는것이 바로 정치라는것이다.

범죄행위에 대한 죄의식은 꼬물꼬물도 없는 리명박에 대한 참을수 없는 우롱이고 모독이 아닐수 없다.

꼭뒤에 부은 물이 아래로 흐른다고 명색이 《대통령》이라는자가 백주에 《법》을 위반하고도 아무런 고통이 없으니 그의 측근인물들이라고 다를바 있겠는가.

오늘 남조선에서 악취내나는 불법행위가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내곡동주래부지구입사건 수사결과를 남조선에서의 《법》이 과연 누구를 위한 《법》이며 부정부패의 온상이 어디에 있는가를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본사기자 김철호

부정부패 집단, 협잡무리

을 휘둘러 돈을 끌어오는 그러한 썩은 정치판에서 박희태의 돈봉투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특히 리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남조선에서는 권력형부정부패사건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있다. 최근에 드러난 민간인불법사찰사건과 CNK주가조작사건, 피아시터비사건 등 리명박과 청와대가 직접 개입한 특대형부정부패사건도 부지기수이다.

부산저축은행사건은 그 대표적실례이다.

대주주와 경영진들이 금융감독기판들과 결탁하여 천문학적수자에 달하는 거액의 은행자금으로 부등산투기를 하고 회계장부를 위

조하여 만든 《비자금》으로 정계에 피물을 뿌리다가 파산되어 수십만명 서민들의 돈을 하늘로 날려버린것이 바로 부산저축은행사건이다.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 부산저축은행 관계자들이 청와대의 핵심인물들에게 거액의 돈과 피물을 뿌려서 남조선언론들과 사회 각계의 청와대를 가리켜 전과자들을 집합장소이고 언제 범죄를 저지르러 모를 위험분자들이 모인 《우범지대》라고 부른다고 한다.

청와대뿐이 아니다. 리명박은 집권후 16차례의 개각을 통해 50명의 장관급인물을 등용하였는데 그중 45명이 《부등산투기, 랄

인물은 무려 200여명이나 된다고 한다.

리명박의 심복들로 꾸러진 청와대가 이처럼 범죄와 부정부패를 앞장에서 저지르고 있다.

하기는 수석비서관과 보좌관, 비서관들이 모두 땅투기를 한적이 있거나 사기범죄로 처벌받은 전과자들이어서 남조선언론들과 사회 각계의 청와대를 가리켜 전과자들을 집합장소이고 언제 범죄를 저지르러 모를 위험분자들이 모인 《우범지대》라고 부른다고 한다.

청와대뿐이 아니다. 리명박은 집권후 16차례의 개각을 통해 50명의 장관급인물을 등용하였는데 그중 45명이 《부등산투기, 랄



리명박 《정권》이 저지른 부산저축은행사건을 폭로단죄하는 남조선인민들

최근 《새누리당》이 당헌 명부패사건으로 크게 줄기를 치르고있다.

지난 2월 이 당의 한 당직자가 돈에 미쳐 당원들의 개별자료를 들어있는 명단을 어느 한 민간업체에 헐값으로 팔아먹은것이다.

더우기 4월에 있는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30여명의 《새누리당》 후보가 이 업체와 계약을 맺은 사실이 그들중 15명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것이 드러나 파문은 더욱 커지고있다.

돈을 위해서 저들게리들까지 능거리로 팔아먹고 또 권력을 쫓아 그것을 부당하게 리용한 너절한 시정패들의 집단인 《새누리당》의 부패상이 이번에 또 날날이 드러나면서

사건이 터지자 남조선 각계는 《새누리당》에 비난과 규탄을 퍼부었고 있다. 민주통합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이

번 사건과 관련하여 《박근혜가 웅대 책임을 지고 정계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을 요구해나섰다.

특히 야당세력은 통합진보당의 사태를 두고 《당선 무효》니, 《법적처리》니 하며 개거품을 물고 헐뜯던 《새누리당》 패거리들의 망동을 상기시키면서 《부정부패와 계약을 맺은 사실이 그들중 15명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것이 드러나 파문은 더욱 커지고있다.

돈을 위해서 저들게리들까지 능거리로 팔아먹고 또 권력을 쫓아 그것을 부당하게 리용한 너절한 시정패들의 집단인 《새누리당》의 부패상이 이번에 또 날날이 드러나면서

사건이 터지자 남조선 각계는 《새누리당》에 비난과 규탄을 퍼부었고 있다. 민주통합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이

러는 권력자심가들의 개싸움질로 하여 《새누리당》은 말그대로 풍전등화의 위치에 빠져들고있다. 이번 사건은 《새누리당》이 부르는 《쇄신》과 《변화》가 민심을 거만하기 위한 위장장판이고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한갖 기만장판에 불과하다는것을 여지없이 실증해주었다.

각한 대립과 갈등의 궤단 깊어지고있다.

친박계에 의해 지난 《국회의원선거》를 위한 당내 《공천》에서 밀려난 친리명박파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면서 박근혜의 사과를 요구하고있다.

더우기 이 사건을 다듬기 《대통령》 감투를 뒤집어쓰는데 요긴하게 리용해먹으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싸이베레로사건과 전당대회 돈봉투사건으로 흐려진 당의 영상을 개선한다고 하면서 감간판을 바꾼다. 《괘령》을 뜯고친다 하며 《괘신》 놀음을 올리고있던 때였다.

그러나 보다싶이 이 당대거리들은 《괘신》의 병풍뒤에 든 돈몰질과 권력쟁탈전을 벌였다.

최근에도 부산저축은행사건과 삼화저축은행사건에 박근혜가 련루된 사실들이 알려지고 반역당이 리명박역도의 BBK주가조작사건을 덮어버리기 위해 가짜편지를 조작한 사실들이 드러나고있다.

사실들은 반역당이 아무리 《괘신》과 《변화》의 화려한 비단보자기를 뒤집어써도 돈과 권력을 위해 별의별 너절한짓도 서슴지 않는 추악한 본성은 절대로 고칠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김동철

내곡동주래부지구입사건을 폭로하는 남조선인민들(→ ↓)



4대강에 넘쳐나는 부정부패 행위

최근 남조선에서 100여년 만에 들이닥친 혹심한 가물로 하여 커다란 피해를 입고 있다. 논들이 말라 갈라져지는것은 물론 고구마줄기까지 라버려 죽는 형편이다.

더우기 심각한것은 리명박 《정권》이 벌려놓은 4대강사업으로 하여 여러 강들과 저수지들의 물량이 대폭 줄어들어 그 피해가 더욱 커지고있는것이다.

현실이 이러한에도 불구하고 리명박은 얼마전 중남아메리카나라들을 행각하면서 《4대강으로 가물을 극복했다.》며 4대강사업으로 그 무슨 《기적》이나 일킨듯이 치적 자랑에 광분하였다.

이 얼마나 파렴치한 노릇인가.

이미 알려진바와 같이 4대강사업은 리명박 《정권》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한반도대운하》 사업의 변형으로서 수질악화와 환경파괴 등으로 하여 남조선인민들은 그것을 처음부터 줄기차게 반대하여왔다.

현실적으로 4대강사업으로 하여 산과 강하천들이 마구 파헤쳐지고 파괴되어 교량붕괴, 우면산사태와 같은 비극들이 도처에서 벌어지고 강하천들이 오염되어 남조선인민들은 커다란 고통을 받고 있다.

지금 리명박 《정권》이 추진해온 4대강정비사업은

산일 등 건설업체들은 살길이 열리었다는듯이 열흘 굶은 승냥이마냥 앞을 다투어 달려들었다.

이 건설업체들은 입찰과정에 서로 불법거래를 하여 공사비를 1조원이상이나 불구 리득을 보았다. 그 리득중에서 많은 부분이 청와대로 흘러갔다것은 여론의 주장이다.

결코 틀린 소리가 아니다.

4대강사업에 뛰여든 현대건설로 말한다면 리명박이 1965년부터 1988년까지 몸담고있던 기업체였으며 4대강사업가운데서 락동강사 구간을 맡은 7개의 건설업체 대표들은 리명박과 그의 형 리상두의 모교출신들로서 리명박을 앞에 내세우고

막뒤에서 막대한 돈을 걸어들었다.

리명박뿐아니라 그의 친인척들도 권력을 배경으로 4대강사업에 끼여들어 술한 돈을 끌어모았다.

단적인 실례로 리명박역도의 손우동서의 막내동생은 2010년 10월 《대통령》과의 특수관계를 내세우면서 4대강사업에 참가시켜 리득을 얻게 해주겠다고 속여 3명의 기업가들에게서 수천만원을 받아먹었다.

리명박 《정권》이 수질개선에니, 홍수피해방지를니 하며 4대강사업에 분철을 하여도 부정부패로 마르고 병든 4대강은 반역무리들을 저주하며 지금도 몸부림치고있다.

본사기자 리광성



창전 거리에 펼쳐진 인민의 보금자리



인민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극장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아버지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 제일 가까운 곳에 인민극장이 새로 일떠섰다.

인민극장, 세상에 오랜 력사와 문화전통을 자랑하는 극장들이 많지만 인민이라는 고귀한 이름으로 불리우는 극장은 공화국밖에 없다.

인민을 하늘처럼 내세우며 이 나라의 가장 훌륭한 건축물들과 기관들에 인민이라는 명칭을 붙이는 공화국에서는 이번에 평양의 중심부에 새로 일떠서는 극장에도 인민의 고귀한 이름을 새기었다.

인민극장의 전경은 바라볼수록 웅장하면서도 깊은 뜻이 안겨온다. 원형으로 손꼽히는 유리벽체는 마치도 손꼽히는 풍량처럼 주름잡히게 형성

되어있어 인민을 위한 세상에서 만복을 누려가는 끝없는 행복을 노래에 담아 울려가는듯 한 느낌을 준다.

건물의 내부 역시 최상의 수준에서 꾸러진 우리 민족의 귀중한 재부이다. 건축의 조형화, 예술화가 훌륭히 실현된 인민극장은 연건 축면적 5만여㎡, 총진평 1만 1500여㎡로서 지하 2층, 지상 6층으로 이루어져있다.

마이크를 전혀 쓰지 않는 1500석의 원형생음악극장과 500석의 지하극장을 가지고 있는 인민극장은 최신식무대설비들과 편습실, 분장실, 지하주차장을 비롯한 편의봉사시설에 이르기까지 예술창조와 공연활동, 관람에 필요한 온갖 조건을 충분히 갖추고있다.

원형건물의 특성에 맞는

인민극장의 홀들은 매우 특색있게 되어있다. 정면현관으로 들어서면 1층과 2층은 하나로 관통된 홀로 되어있는데 넓은 공간으로 하여 시원한감을 주고있다. 그런가 하면 3층의 홀은 관람자들이 공연시작전과 휴식시간에 자유롭게 거닐기도 하고 이야기도 나눌수 있게 유보홀로 되어있다. 4층의 홀은 여러가지 전시회를 진행하거나 연회를 할수 있게 꾸러져있다.

극장의 정면벽에 새겨진 영생불멸의 혁명승가악보의 첫 대목과 마지막대목의 선율은 사람들이 하여금 진할 줄 모르는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송고한 인민사랑의 세계에 대하여 가슴뜨겁게 절감하게 한다.

본사기자 리계명

지난 22일, 완공된 창전거리의 살림집들에서 새집들이가 시작되었다. 웅장 화려한 창전거리로는 이사집을 실은 차들이 꼬리를 물었다. 사람들모두가 제일처럼 기뻐하며 새집들이하는 주인들을 축하해주었다.

《정말 기쁘시겠습니까.》

《얼마나 좋겠나요.》

《새집들이경사를 축하합니다.》



기쁨속에 울고 웃으며

《다들 어서 들어오십시오. 보시다싶이 집이 좋다는 것은 이루 다 말할수 없습니다.》

《첫눈에도 성격이 활달해보이는 그는 병글썩하게 열린 입을 쭉처럼 다물지 못하였다. 그럴만도 했다. 덩실한 새 집에는 신발장, 양복장, 이불장, 침대, 식탁을 비롯하여 살림살이에 필요한 가구들이 그쯘히 갖추어져있었다.》

부엌은 또 얼마나 정갈한가. 일대까지 타일을 붙인 벽이며 바닥은 산뜻하기 그지

없었다. 가시대와 조리대가 펼쳐진 우에는 멋들어진 찬장까지 척 놓여있었다. 그래서인지 가정주부인 그의 안해 김순옥녀성은 너무 좋아 부엌에서 떠날줄을 몰랐다. 《말을 다 못해요. 이런 집이 차례질줄 생각이나 했어요?》

아들내외와 함께 사는 어머니 방선희녀성이 눈물을 흘리며 하는 말이였다. 이곳에서 태어나 60여년을 만수대지구에서 살아왔다는 방선희녀성, 노동자였던 그의 아버지 역시 전후 나라에서 준 새 집을 받았다고 한다. 그

때에도 새 집을 받고 너무 좋아 춤을 추었는데 오늘은 그에 대비할수도 없는 궁궐같이 황홀한 집을 둔 한판 내지 않고 받아안고보니 그 마음 그 심정을 무슨 말로 다 표현할수 있으랴.

《입사증을 받아안고 꼭 꿈을 꾸는것만 같아 잠을 다 못 잤습니다. 평범한 노동자 집안인 우리에게 이런 집을 가져 주는 고마운 나라가 어디에 있었나요?》

기쁨에 웃고 고마움에 우는 사람들, 이것이 창전거리의 새집들이풍경이었다. 나날이 커가는 그 웃음속에 누그러져서 살아왔다는 방선희녀성, 노동자였던 그의 아버지 역시 전후 나라에서 준 새 집을 받았다고 한다. 그

평범한 근로자들이 받아안은 행복

내외의 커다란 관심속에 창전거리 준공식이 성대히 진행되었다. 현대적인 고층, 초고층살림집들과 특색있게 건설된 인민극장, 각종 봉사시설들이 준비되어 일떠선 창전거리는 조형화, 예술화, 공연화가 참신하게 실현된 그야말로 몇평이거러이다.

이에 대해 외국의 한 출판물도 《평양시를 세계급의 도시로 건설하는것은 조선의 김정일최고령도자의 생전의 념원이였다.》고 하면서 창전거리가 그 본보기로 일떠선데 대하여 상세히 보도하였다.

새로 일떠선 창전거리에서는 지금 새집들이가 한창 진행되고있다. 이전에 이곳에서 살던 철거세대주민들은 자기들이 살던 집보다 4~5배나 더 넓은 살림집을 받아안고 너무 기뻐 어쩔줄을 몰라하고있다. 40여년간을 이곳에서 살아온다는 78살 난 김정희로인은 《생각할수록 꿈만 같았다.》며 새집들이 기쁨을 표현하였다.

나라에서 살림



《정말 기쁘시겠습니까》

하나의 대가정

딸랑-딸랑- 첫 입사를 한 종로동 3-나호동 4층 1호집의 초인종소리는 실재없이 울린다.

《축하합니다.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반가이 인사하며 들어서는 여러명의 일꾼들.

그들속에는 당일근로부러 전화를 놓아주는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빠짐없이 다 있었다.

구역의 책임일꾼들이 가구 배치며 살림살이를 허물없이 논해준다. 주부인 최명숙녀인은 고급이불장이며 양복장도 열어보이고 찬장이며 가시대, 침대며 식탁들을

자랑하느라 붐-뒹다.

《열아홉살부터 42년간 서구공공건물건설사업소 노동자로 일해오면서 술한 집을 지었지만 우리 집정일대원수님과 김정은장군님의 사랑이 어린 이 집만큼 훌륭한 집을 보지 못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야 우리같은 노동자들이 이런 호화로운 집에서 살 엄두도 내겠습니까. 내 나라 사회주의제도가 제일입니다.》

세대주인 허병식아버이의 말이다.

첫 방문객들에 이어 영예군인인 이 집 아들 허명철

과 한가정처럼 지낸다는 통일거리에 사는 교통지휘대대원인 리동남이 할떡보따리를 든 안해와 함께 들어섰다.

이번에는 한민민반에 살던 사람들이 들어선다. 세상에, 세상을 연방 외우며 금빛 무늬 새겨진 벽을 쓸어만지고 이방, 저방 돌아다니며 감탄하는 녀인네들, 눈만 스며버 거리는 남정네들...

《오늘밤은 다 우리 집에서 자자구요.》 안주인이 정답게 말했다.

《여보시오. 신의주영예군인학원이지요. 제 거기 학생인 허명철의 아버지입니다. 우리 명철이가 24일 창전거리에 새로 일떠선 결혼식식당에서 첫 결혼식을 합

나다. 학교선생님들을 초청합니다.》

웃고 떠들던 사람들이 일시에 숙연한 마음에 젖어들게 하는 전화내용이였다.

《원장선생님을 (단장)으로 하는 (축하단)이 떠난다구요.》

사랑의 노래여 울려가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축복속에 우리 신영종합식당 결혼식당에서 뜻깊은 첫 결혼상을 받게 될 주인공들은 영예군인 허명철과 룡성고기가공공장 노동자 최금주입니다.》 김순옥녀성 축하사당 지배인의 이야기이다.

줄지어 달려던 차들도 지나가던 사람들도 모두 멈춰서서 축하해준다. 축하의 꽃다발과 꽃보라속에 묻혀 결혼식당에 들어서는 신랑신부와 그들을 둘러싼 사람들의 얼굴에 감사의 정이 함뿍 어렸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결혼상을 잘 차려주도록 은정을 베푸신 이야기를 전하는 일군의 목소리도 감격에 젖어있었다.

감사의 격정이 파도치는 결혼식당에서 신랑이 하는 말.

《첫날웃음으로부터 이불이며 가정용품, 부엌세간이 여기까지 다 마련해준 하늘같은 사랑에 목이 딱 메입니다.》

저마다 부르는 노래와 축하

국경도시 신의주에서도 새집들이축하인사가 왔다. 은 나라 함께 기뻐한다.

잡은 길어간다.

로대에 나서니 휘황한 야경속에 축하받은 집집의 창가마다에 눈물이 글썽한 사람들의 얼굴이 비졌다. 이 집의 공동살림방에 멋지게 걸여놓은 《하나의 대가정》이라는 족자가 불밝은 창가에 비쳐왔다.

하의 인사로 결혼식이 고조를 이루었다. 신랑신부의 2중창 《아버지장군님 고맙습니다.》는 그대로 모두의 함창으로 번져졌다. 신부의 고운 얼굴에도 의젓한 신랑의 얼굴에도 감사의 눈물이 줄줄이 흘러내리고있었다.

TV촬영가도 울고있었다. 결혼식은 위대한 사랑에 대한 시이고 노래였다. 감동이었다. 절세위인들의 은정속에 회한하게 일떠선 창전거리와 함께 만사람들의 기억속에 영원할 사랑의 노래가 온 세상에 울려가는 시각이었다.

함께 울며 손을 맞잡는 우리에게 신랑신부가 말했다.

《은 나라 가정의 친어머니인 경애하는 김정은장군님께 감사의 편지를 올리고싶은 충동을 금할수 없습니다.》

본사기자 박단희

평범한 근로자들이 받아안은 행복

집을 지어 인민들에게 거저 나누어주는것은 공화국의 일관한 인민적시책이지만 이로 록 현대적인 주택을 둔 한판 내고 받아안게 되었으니 어찌 기뻐하지 않랴.

평양시중심부에 일떠선 훌륭한 주택거리에서 어떤 사람들이 살게 될것인가 하고 호기심을 품고 이곳을 찾았던 외국인들도 평범한 근로자들이 이사하는것을 보고 조선이야말로 진정으로 인민을 위한 세상이라고 경탄을 아끼지 않았다.

그뿐이 아니다. 창전거리에 일떠선 인민극장에서 는 평범한 근로자들이 자기 령도자를 한자리에 모시고 공연을 관람하고 훌륭하

게 꾸러진 아동백화점과 경상유치원, 경성락야스, 경성소학교에서는 어린이들과 학생소년들의 맑은 웃음소리와 노래소리, 배움의 글소리가 랑랑히 울리고있다.

자본주의세상같으면 사회의 최하층에서 갖은 천대와 멸시를 받은 평범한 근로자들이 인민의 위대한 어머니를 높이 모신 공화국에서만은 하늘처럼 떠받들리며 값 높은 삶과 행복을 마음껏 누려가고있는것이다. 하기에 창전거리만이 아닌 이 땅 그 어디에서나 돌아보면 세상은 넓고넓어도 내 사는 내 나라 제일로 좋아라는 노래소리가 끊없이 울려나오고있다.

본사기자 박금일

본사기자 김준경



창전거리에는 인민들이 줄지어 찾는 여러가지 지하봉사시설들도 훌륭히 꾸러져있다. 두대의 차가 어길수 있는 폭으로 시원하게 뻗어간 차도로와 걸음길, 갖가지 사람들이 활짝 핀 원형화단... 천정에는 조명등들과 함께 밝은 햇빛이 비쳐들도록 채광장치들까지 설치되어 지하라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는다.

이곳에 자리잡은 사관관, 꽃방, 약품매대, 축뽕매대, 기념품매대, 청량음료매대 등 각종 편의봉사시설들은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온다. 그들은 매대들에서 꽃과 기념품도 사고 사진관에 들려 사진도 찍으며

간이식당에서 청량음료도 마신다.

사진관책임자 조혁철은 《문을 연지 얼마 안되지만 벌써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다. 아마 새로 일떠선 창전거리를 배경으로 하여 사진 찍어보고싶은것 같다.》고 말했다. 사람들이 닳아에는 독특하면서도 멋들어진 인민극장과 초고층, 고층건물들을 배경으로, 밤에는 밤대로 황홀한 불야경을 펼쳐놓는 창전거리를 배경으로 저마다 사진을 찍고있는 이곳 사진관을 찾고있다는것이였다.

축뽕매대의 료리사 백은금도 생일과 기념일상에 쓸 축뽕을 주문하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나 일하는 보람을 느낀다고 웃으며 말했다. 지하의 봉사시설들은 또 한 지상의 봉사건물들인 은 형식의 화단들로 장식된 공원이 있다.

얼마전 이곳을 찾은 한 해외동포는 창전거리처럼 인민들의 편리에 맞게 봉사하면서 미학적으로 완벽한 봉사시설들은 처음 본다고 하면서 이것만 보아도 인민의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하고 고국에 대하여 잘 알수 있다고 경탄을 표시하였다.

본사기자

선 편리성, 후 미학성의 원칙에서

정차장과 증구역종합식당, 해맞이식당들과 련결되어있어 손님들이 지하와 지상의 봉사시설들이를 쉽게 오갈수 있고 식당운영에 필요한 물자공급도 이곳을 통해 할수있게 편리하게 설계되었다.

지하에는 주차장과 함께 중심에 등그렇고 큰 화단이

새 거리의 살림집들에서 생겨난 일화들

제일 먼저 받은 입사증

지난 20일 새로 일떠선 창전거리 준공식이 진행될 이날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 노동자 성봉철은 새 살림집 입사증을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 흥분된 마음으로 해당 장소로 간 그는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철거세대만 해도 수천세대가 넘겠는데 모여온 사람들은 불과 백수십여명. 어떻게 된것일까?..

그 의문은 평양시인민위원회 일군의 말을 듣고서야

또다시 찾아온 녀인

지난 21일 날이 제 밝기도 전에 이사를 앞둔 창전거리 종로동 5-다호동 3호관에 한 녀인이 찾아왔다. 녀인

비로소 풀리게 되었다. 나라에서 어렵고 힘든 부문에서 일하는 근로자들부터 먼저 입사시키기로 하였다는 것이였다.

《중구역 대동문동 7호동 3층 1호 성봉철》이라고 씌여진 입사증을 꼭 부여잡은 그는 혁-하고 호느꼈다.

내 조국이야말로 이 세상에 돌도 없는 인민의 세상이 로구나 하는 격정이 북받쳐 올랐던것이다.

앞이 화려여 모든것이 한 눈에 안겨왔다. 만수대언덕에

에게 김정희녀성은 어제 입사증을 받고 새 집에 와보았지만 이런 궁궐같은 집에 살게 된것이 너무 꿈만 같아 무슨 정인지 보았는지 모르겠다고, 그때 밤새 잠을 못 이루다가 아침일찍 다시 돌아보러 왔다고, 정말이지 하늘같은 이 은덕에 무슨 말로 고마움을 표시해야 할지 모르겠다고며 눈물을 흘리었다.

세상을 굽어보며 산다

창전거리 경성동의 새 집에 이사집을 풀어놓은 박명봉은 45층로대에 나섰다. 오래된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는 원림사업소에서 일해오면서 늘 땅에서 살다싶이 해운 그였다. 이사오기 전에도 낮은 층에서 살던 그가 45층에 오르니 마치도 비행기를 타고 만리대풍을 쫓는 날은 환희로운 심정이였다.

앞이 화려여 모든것이 한 눈에 안겨왔다. 만수대언덕에

본사기자 홍범식

본사기자 박금일

어릴 가나 푸른 빛이 완연한 여름계절이다. 은행나무, 수삼나무, 버드나무를 비롯하여 수종이 좋은 가로수들의 푸르싱싱한 모습도 보기 좋지만 곳곳마다 활짝 핀 꽃들은 또 얼마나 아름다운가.

거리의 꽃들만이 아니다. 시내의 여러곳에 꾸러진 꽃상점들도 아름다운 꽃들로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 주고있다. 그중에서도 평양역앞에 자리잡고있는 역전꽃상점은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들이 많아 사람들의 호평을 받고있다.

《꽃은 예로부터 아름다운 색과 자태, 그윽한 향기로 하여 사랑과 행복, 평화와 번영, 경모와 경의의 상징으로 되고있습니다. 사람들은 사랑과 존경을 표시하고 축하의 인사를 전하고자 저마다 우리 상점에 들려 여러가지 꽃들을 사가곤 합니다.》

역전꽃상점의 리영화책임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며 꽃전시장을 방문케 하는 꽃상점안을 보여주었다. 그의 말대로 상점안에는 과연 없는 꽃이 없을상

인 기 있는 꽃 상 점

* 평양시 중구역 역전꽃상점 *

있었다. 장미, 백합, 향페랭이꽃, 다리아, 백일홍, 천수국, 만복화, 일일초, 글라디올라스 등 향기그윽한 생화로도 많았지만 실내장식용꽃으로 그치지않고 화려한 천꽃, 종이꽃들로 상점안은 온통 울긋불긋했다.

꽃들만이 아니었다. 신선어, 금전어, 네꼬리금붕어를 비롯하여 보기 좋은 관상용물고기들이 유유히 꼬리를 저으며 어항속에서 노니는 모습은 또 얼마나 마음을 상쾌하게 해주는것인가.

《스승이나 친구의 생일을 맞으며 꽃을 사가는 사람들이 제일 많습니니다. 손님들의 기호에 맞게 싱싱한 생화를 팔라 다발을 엮어주기도 하고 손님들의 기호에 따라 주문봉사도 해주니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장일화판매원이 하는 말이였다. 그의 말에 의하면 생일축하나 결혼식축하인사를 하러 갈 때, 3.8국제부녀절 등 여러 뜻있는 계기들에 꽃

을 사러 오는 손님들로 상점안이 늘 흥성이라고 한다. 이렇게 누구나 좋아하는 꽃상점이 사람들이 제일 붐비는 곳의 하나인 평양역앞에 꾸러져진 역전꽃상점을 내내 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었다고 한다.

본사기자 김준경



최근 에네르기개발동향

자료에 의하면 현재 석탄과 천연가스, 원유 등 전통적인 에네르기를 리용한 전기생산량은 세계전기생산량의 69%, 재생가능한 에네르기를 리용한 전기생산량은 17%, 핵에네르기를 리용한 전기생산량은 14%를 차지한다고 한다.

최근 에네르기개발동향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전통적인 에네르기의 사용효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 적극 추진되고있다.

재생가능한 에네르기를 리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면 비용이 많이 들고 기술도 복잡하다. 따라서 핵에네르기의 용의 제한으로 산생되는 에네르기공급부족의 압력은 주로 전통적인 에네르기분야에 돌려지고있다.

둘째로, 재생가능한 에네

르기에 보다 큰 주목이 돌려지고있다. 이 에네르기의 우점은 재생성 있고 깨끗하며 안전할뿐 아니라 수요를 기본적으로 충족시킬수 있다는것이다. 현재 결합은 초기투자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다.

셋째로, 지능에네르기기술 개발이 적극 추진되고있다. 최근 년간 급속히 발전하기 시작한 이 기술은 수감기술, 컴퓨터통신기술 등을 리용하여 에네르기생산과 수송, 사용 등의 과정을 합리적으로 조절하는 새로운 기술이다. 이 기술을 리용하면 에네르기소비를 크게 줄이고 에네르기사용효율을 현저히 높일수 있다.

지능에네르기기술에서 지능전력망기술이 크게 발전하였다.

국제에네르기기구가 예측한데 의하면 지능전력망기술을 광범히 도입하면 한해에 세계원유생산량의 약 10%와 맞먹는 에네르기자원을 절약할수 있다.

넷째로, 에네르기절약문화가 광범히 보급되고있다. 에네르기절약문화란 에네르기절약에 대한 기업과 기관, 사회 혹은 가정의 모든 성원들의 관념과 에네르기절약을 위한 행동방식의 총체이다. 자료에 의하면 에네르기소비와 관련한 그릇된 습관을 완전히 버리면 에네르기를 37.5% 절약할수 있다.

또한 가족성원들이 에네르기절약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파악하기만 해도 가정에서는 에네르기를 9% 절약할수 있다고 한다.

혼수는 친척간의 밀고 가 따움을 나타내는 수사체계이다. 우리 나라에서 혼수는 어느 친척이 본인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나타낸다.

혼수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한마디로 하여 계산된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혼수가 없다.)

자기와 부모사이에는 1촌이고 한마디가 더 늘어난 형제자매사이에는 2촌으로 표시된다. 이런 식으로 아버지의 형제와는 3촌이 되고 3촌의 자녀들과는 4촌이 되고 4촌의 자녀들과는 5촌이 된다.

혼수에서 짝수(4촌, 6촌, 8촌 등)는 자기와 같은 할렬로서 형 또는 동생관계이고 홀수(3촌, 5촌, 7촌, 아

그리하여 역전꽃상점, 개선꽃상점을 비롯하여 매 구역마다에 꽃상점들이 나오게 되었고 구역화초사업소들에서 정성껏 피운 꽃들을 합시적으로 상점들에 보장하는 정연한 체계가 세워지게 되었다. 시내의 곳곳에 생겨난 꽃상점들은 사람들의 탄탄적인 정서생활에 향기를 더해주고 기쁨을 더해주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김준경

김일성방송대학 교무부에서 알립니다

김일성방송대학에서는 력사적인 7.4공동성명발표 40돐 기념특강을 다음과 같이 조직진행하려고 합니다.

강의제목: 7.4공동성명의 발표와 그 력사적의의

강의시간: 1강의

송출날자: 주체101(2012)년 7월 4일

홈페이지주소: http://www.ournation-school.com

전자우편주소(E-mail): schoolmanager@silbank.com

청강생 여러분들이 주의깊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민족고전 《대전속록》

슬기롭고 문명한 우리 선조들이 창조한 귀중한 민족 문화유산들 가운데는 법전유산도 있다.

《대전속록》은 리조시의 법전의 하나이다. 이 법전은 당시의 기본법전이었던 《경국대전》을 변화된 환경에 맞게 수정보충하여

15세기말에 편찬한 보조법전이다.

《대전속록》은 《리전》, 《호전》, 《례전》, 《병전》, 《형전》, 《공전》의 체계로 구성되었는데 매 절에는 해당 시기의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 사회의 모든 분야를

에서 절박하게 제기되었던 문제들을 법적으로 규제하고있다. 이것으로 하여 당시 봉건사회의 내부형편과 재판관계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대전속록》은 해당 시기의 력사를 깊이있게 반영하고있는 가치있는 력사자료로서 우리 겨레의 귀중한 민족 문화유산으로 된다.

본사기자

조선옷의 남자저고리는 오른쪽이 속으로 들어가고 왼쪽은 우로 댄다. 여자저고리는 이와 반대로 왼쪽이 안으로 들어가고 오른쪽이 우로 나온다.

남녀에 따라 다른 이 차이는 우리 나라의 고유한 좌남우녀의식과도 관련된다.

간장(1801-1834)때 실학

저고리깃을 좌우로 댄는 유래

자 리규경이 《오주연문장전산고》라는 책에서 좌는 남자이고 우는 여자라고 하면서 《좌는 동쪽이요, 우는 서쪽이다. 동쪽은 해가 뜨기 때문에 양방이요, 서쪽은 해가 지기 때문에 음방이다. 양방이 남자요, 음방은 여자이

기 때문에 오른쪽보다 왼쪽을 보다 숭상한다.》고 하였다. 남자저고리의 옷깃을 좌로 댄고 여자저고리의 옷깃을 우로 댄는것도 바로 이런 관념으로부터 나온것이라고 한다.

본사기자

인체의 로화시간표(2)

간장: 70살부터 로화되기 시작한다.

간장은 체내에서 유일하게 로화과정에 도전할수 있는 기관이다.

공팔: 50살부터 로화되기 시작한다.

전위선: 50살부터 로화되기 시작한다.

50살이상의 남성들은 반수 이상이 이로 인해 고통을 겪지만 40살아래의 남성들속에서는 전위선비대가 잘 생기지 않는다. 전위선은 대량의 교환호르몬을 흡수하여 전위선세포의 성장을 촉진하고 나아가서는 비대해질수 있다.

골격: 35살부터 로화되기 시작한다.

어린이들의 골격성장속도

이발: 40살부터 로화되기 시작한다.

사람들은 늙기 시작하면 침의 분비량이 줄어든다. 침은 세균을 죽이는 역할을 하는데 침량이 적어지면 이발이 삭는다. 또한 이몸조직이 류식되면 이몸이 수축된다.

근육: 30살부터 쇠약해진다.

근육은 성장과 쇠약의 과정을 반복하면서 유지된다. 젊은 사람들속에서는 이러한 과정의 균형성이 잘 유지되지만 30살이후부터는 근육의 쇠약속도가 성장속도보다 더 빨라진다.

정력: 55살경부터 퇴화되기 시작한다.

자료에 의하면 60살을 갓 넘긴 사람의 반수 이상이 로화로 인해 정력이 약화된다. 이것을 로인성난청이라고 한다.

피부: 25살경부터 로화되기 시작한다.

미각 및 후각기능: 60살부터 퇴화되기 시작한다.

60살에 이르러 미각과 후각기능은 점차 퇴화되는데 일부는 정상적인 로화과정의 결과이다.

본사기자

《철봉아》 맑은 신부

리익정네 부부가 백년가약을 약속하고 금슬 좋게 살아온지도 6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자식들은 그들부부에게 회혼례를 차려주었다. 회혼례는 혼인 예순살을 기념하여 자식들이 부모에게 상을 차려주는례식을 말한다.

회혼례는 혼인잔치때와 같이 의례 절차를 갖추고 거행하는만큼 지위도 있고 재산도 있는 부유한 가문이나 양반집들에서나 볼수 있었으므로 매우 제한된 범위에서 진행되어왔다.

리익정부부의 회혼례에는 그들의 자식들은 물론 친척들과 마을사람들이 모여

들어 옷을 마련하고 상을 차리는 등 요란하게 진행되었다.

그날 안해와 함께 《신부방》에 들어 감주지회(지나간 일들을 돌이켜보며 느끼는 회포)를 주고받은 후 리익정은 다음날 자손들과 친척들속에 둘러싸여 웃음꽃을 피우고있었다.

이때 리익정이 제일 사랑하는 막내딸이 아버지에게 말을 걸었다.

《아버님, 동방화축(혼례를 치른 뒤 신랑이 신부방에 머물러 자는 의식)에 하루밤을 보내셨으니 《신부》가 마음에 드셨나이까?》 리익정은 딸의 통말을

재치있게 받아넘기었다.

《글세 《신부》는 마음에 꼭 드는데 단지 한가지 흠이 있거든.》

그러자 딸애와 사람들은 중궁해하였다.

《그게 뭐가요?》

리익정은 턱을 슬슬 내리 쏘며 대답하였다.

《다름이 아니라 《철봉아》(너자가 재가할 때 전남편의 자식을 데리고오는데 이 자식을 일명 철봉아라고 부른다.)가 너무 많아 그것이 골치거리구나.》

《신랑》의 유쾌한 익살에 사람들은 저마다 배를 그리 쥐고 폭소를 터뜨렸다.

본사기자

건강에 유익한 습관

수명을 늘이면서도 짧은 시간내에 진행할수 있는 간단한 운동 및 습관은 다음과 같다.

한시간에 한번씩 몸을 일으켜야 한다.

메일 앉아있는 시간이 4시간이상인 사람은 2시간 이하인 사람에 비해 각종 질환으로 사망할수 있는 비율이 50%이상 더 높다고 한다.

그러므로 한시간에 한번씩 최소한 1분정도 움직여야 한다.

이발관리를 잘해야 한다. 이발관리를 잘하지 않으면 이발기가 세균에 감염되고 피속에까지 세균이 침입할수 있다.

맥박을 재보아야 한다.

본사기자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두번째와 세번째 손가락끝을 팔목안쪽에 가져다대고 맥박을 측정해야 한다.

1분동안에 맥박회수가 60번인 사람에 비해 90번이상인 사람은 심장병으로 사망할수 있는 있는 비율이 3배나 높다.

일출안마를 해야 한다. 정신적긴장은 인체장기에 손상을 줄수 있다.

간장을 인차 해소하려면 두 엄지손가락으로 양쪽코 날개로부터 눈 밑까지, 두번 세손가락과 세번째손가락으로 이마를 문지른 다음 양쪽 관자노리를 부드럽게 마사지해야 한다.

본사기자

여름철 건강에 좋은 과일

병어는 병어과에 속하는 바다물고기로서 기름지고 뼈가 만만하며 고기맛이 대단히 좋다. 예로부터 《봄 도다리, 여름 병어, 가을 전어, 겨울 방어》라는 말이 전해져내려오는데 이것은 병어가 4계절의 대표적인 고급어족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옛 문헌인 《자산어보》에도 병어는 맛이 좋고 뼈가 연하여 회, 구이, 국거리에 좋다고 기록되어 있다.

가정들에서는 병어로 식혜, 짓갈을 만들며 많이 리용한다. 병어에는 인체에 좋은 지방함량이 10.9%로서 물고기의 평균 지방함량인 3%의 3배 이상에 달한다.

지방속에 포함된 지방산인 DHA, EPA도 다른 물고기보다 비할바없이 많은데 이것으로 하여 동맥경화, 당뇨병예방에 효과가 있다. 병어에는 시력

을 보호하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비라틴A가 충분히 들어있다.

병어는 물속에서 나오자마자 죽는 특성이 있지만 크기에 비하여 살이 많고 부패되기 쉬운 피와 내장이 적은것으로 하여 죽은 후에도 선도가 다른 물고기들보다 오래동안 유지된다.

병어를 수분이 빠지지 않도록 비닐봉지에 넣어 냉동한 다음 일정한 온도에서 천천히 녹여 얼음이 서서 녹아 가는 상태에서 썰어 회로 먹으면 별맛이다. 갈자와 갈과, 낫고추를 넉넉히 깔고 병어를 넣은 다음 고추장이나 간장에 졸인 병어전골은 여름에 더위를 몹시 타는 사람들의 입맛을 돋구는데 제격이다. 특히 산모들에게 있어서 병어를 넣고 끓인 미역국은 제일 좋은 영양음식이라고 한다.

본사기자

기 리 기 (2)

글 김승기, 그림 김윤일

그는 정윤기의 기승과 인감을 이미 체험한바 있었다.

《난만의 집》에서 낮을 익힌지 몇달 지난 어느날 서술사가에서 통일행진대의 《출발명》이 있었다. 그때 무장한 경찰들이 앞길을 가로막았다. 금시 최후란언막이 뒤덮을듯 한 긴장속에 행진대와 경찰이 마주서서 서로 기를 쫓고있었다.

《경찰은 물러가라! 우리가 바라는것은 조국의 통일이다.》

《헤쳐라! 헤쳐! 더이상 란동을 부리면 재미없다!》 위협을 하는 경찰의 악청이 행진대원들을 머릿거리게 했다. 이때 용기를 북돋아주는 행진대원이 행진대를 교무했다.

《누구나? 통일이라는 깨끗하고 신성한 말에 칼질을 하는 너희들은 누구냐? 민족의 숙원이 피의 강물을 이루

고 흐르는걸 보지 못하느냐? 력사의 이 대하를 막는 무리들은 통일의 원수, 민족의 원수다!》

청년학생들이 이 웨침에 화답하며 대렬을 정돈하고 나아갔다. 금해맞은 경찰들은 끈봉을 무질서하게 휘두르면서 퇴각했다. 여기저기에서 기세를 돋구며 행진대는 앞으로 전진했다.

멀리서 울려오는 학생들의 구호와 노래소리를 들으며 걸음을 옮기던 김향순은 가로등에 기대선 정윤기를 보고 흥ित 놀랐다. 오른손으로 기등을 안은채 고개를 옆으로 기울인 그 모습은 석상 같았다. 가까이 다가가니 이마에서 비물같은 땀이 줄지어 흘러내렸다.

《로인님, 왜 이렇게... 무슨 일입니까?》

정윤기는 굳어진 자세로 눈길만 쳐들며 조용히 대답했다.

《일없네. 망나니들의 똥똥이... 그 말할 놈들이 내

허리를...》

그제야 김향순은 정윤기가 경찰관봉에 맞았다는것을 알고 병원간호부들을 불러들였다.

《조심해요. 조심조심... 허리를 다쳤어요.》

정윤기는 담가도 실려 병원구급실로 옮겨졌다. 척추가 심한 타박상을 입었다. 로인에게 있어서는 무서운 타격이었다.

《동통이 심하겠지요?》 김향순의 물음에 로마병원 의사 리경운은 환자의 상태를 주의깊게 살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렇게 있습니까? 뼈를 꺾는것보다 더한 아픔입니다. 쇼크까지 동반할수 있습니다.》

정윤기는 침상에 누운채 신음소리 한마디 내지 않았다. 《의사선생, 모르핀이라도 놓아주세요. 아픔을 잊고 잠잘수 있게.》

김향순이 자기의 고통으로 느끼면서 이렇게 호소하는데

정윤기가 눈을 감은채 말을 하였다.

《일없네. 그런 약으로 진통을 멈춰서야 될것인가?》

《그때도 좀 자고나면 낫겠지요.》

《우리가 당하는 진통은...》

정윤기가 눈을 가느스름하게 떴다.

《...도피해도 안되고 있어 먹고도 생각해도 안되네. 이

기는 이처럼 상상을 초월하는 인내와 지조와 기개를 가진 인간이었다. 정윤기는 입원생활을 두달가까이 했다.

《향순도 좀 자고나면 낫겠지요.》

《우리가 당하는 진통은...》

정윤기가 눈을 가느스름하게 떴다.

《...도피해도 안되고 있어 먹고도 생각해도 안되네. 이

이전처럼 자유롭게 걸을수가 없으며 지팡이에 의지하거나 삼문대에 몸을 싣고 꼭 필요한 때만 움직여야 한다는 견고였다. 병상에서 그가 생각해낸것이 《1인기차시

80고령의 늙은이가 기차를 타고다니며 병든 육체를 혹사하니 이거야말로 무리라고 밖에 달리 볼수 있는가? 김향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윤기의 기차시위는 오늘도 계속되고있다.

《로인님, 오늘도 여가시렵니까?》

《난 평생 마음먹은 걸음을 돌려세워본 일이 없네.》

산을 내려와 로인의 거처지인 《난만의 집》앞에 이른 김향순은 정윤기를 나무의자에 앉힌 다음 방안에 들어가 그의 시위용구호띠를 가지고 나왔다. 하얀 명주천으로 만들었는데 《미군가라!》는 구호가 씌여있었다.

《좋은 구호이군요.》 김향순이 감동적으로 말하자 정윤기는 담담한 표정으로 구호띠를 두르고나서 지팡이에 의지하여 일어섰다.

《하늘에 새긴 뜻일세. 누가 막는단 말인가.》

지금까지 수십차 정윤기와 함께 기차시위를 동행하는 김향순이었지만 로인의 강의로운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움직이는 《신령》이 무엇인지 아직은 알수 없었다.



를 악물고 참으며 감수하느라 면의지가 산같이 크고 높아져서 이기게 되는거지.》 김향순의 눈에 비친 정윤

위》였다. 김향순은 처음에도 그랬고 오늘까지도 정윤기가 벌리는 그 시위가 무리한것이라고 여기고있었다.

본사기자